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9월 3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1 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합동징수 행정지침 무효
관람료 자율화 공정시비

관리공단 이사장 이상한 행보

교계 '합동징수외 대안없다' · 강력대응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남이사장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합동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사찰들을 차례로 방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합동징수 행정지침 무효 △자율화된 관람료 공공성 없다 등의 '문제성 발언'을 하며 문화재관람료 인상조치 철회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김이사장은 8월24일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를 방문 "국립공원입장료의 폐지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흥사는 문화재관람료 인상조치를 한시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김이사장은 이어 26일 감사팀과 동행해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있는 갑사를 방문 갑사(주지 정영)와 신원사(주지 운답) 관계자를 만나 "문화재 관람료 인상을 철회하고 종전처럼 합동징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이사장은 법주사(주지 혜광)를 방문 "문화재 관람료가 자율화 되었으니 기존의 내무부와 문체부, 종단이 행정지침으로 약속했던 합동징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재관람료의 조정 권한이 종단으로 이양되고 인상 논의에 공단의 참석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람료의 공공성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이사장의 발언은 공단측의 개별적 판단일뿐 상급기관인 내무부등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며 "이 문제의 소관부처는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이지 공단측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공단의 한 관계자도 "공단이 검토할 수는 있지만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 줄 안다"고 말했다.

교계는 김이사장의 '법주사 발언' 역시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종단은 90년 이전부터 합동징수를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정부측(내무부 문체부)이 법제화의 곤란을 이유로 '행정지침으로 수용하자'고 제시 해 왔었다. 김이사장의 '행정지침 무효 주장'은 그간 유지되어 온 정부측의 행정지침을 파기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는 것이 교계의 반박.

김이사장의 이같은 행보와 발언은 종단과의 공식 접촉을 회피하고 개별사찰 접촉으로 '외곽 때리기'를 함으로 종단의 강경대응 방침에 입빼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9월초 관광사찰 주지회의를 소집 분리징수와 김이사장의 발언등의 문제를 강도높게 다룰 방침이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도 공단의 분리징수 철회와 총무원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며 분리징수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



북돕기 1백만서명 보고대회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1백만인 서명운동 보고대회가 8월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김수환추기경, 정진경목사, 김종필 자민련 총재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부여 무량사는 신라말 범일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보령 성주사(지)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 신라때 이름난 고찰이지만 여기에는 백제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은 백제탑인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을 본따 만든 백제계 석탑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수백년이 지난 고려때 백제의 옛 땅에 세워져 백제인들의 문화와 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주사지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烏合寺)로 백제 멸망 직전에 붉은 말이 나타나 울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현재 무량사에는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동양최대의 아미타삼존불을 비롯 석등, 당간지주, 감시습 부도 등이 남아 있으며,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중의 하나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를 비롯 석탑 4기, 석불, 석불대좌 등이 번성했던 옛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하늘은 높고 길가의 코스모스와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춤추는 가을의 입구에서 우아하고 격조높은 백제미를 창조했던 백제인의 불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9월 테마여행 - 무량사 · 성주사지

■ 참가 안내

◇출 발: 9월 28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각자 지참)
◇안 내: 임병고(백제사적연구회장)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이 광 수

광복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일제가 시퍼런 눈초리로 공출(公出)이라는 명목아래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모두 빼앗아 가던 때에도 그 감시를 피해 용가리 징만은 대문안 땅속 깊이 묻어 두었다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명을 돋구어 어려움을 달래며 살았고 창씨개명등 문화적 억압을 해도 우리의 정신문화 만큼은 지키며 서로 나누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2m가

나눔의 정신이 그립다

넘는 높은 담벼락을 치고 그위에 쇠창살까지 설치하고 육중한 철제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웃집에 불이라도 나면 이웃을 걱정하기 보다는 그 불이 자기집으로 옮겨 붙지나 않을까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닫혀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는 그릇된 가치관은 옆 사람에게 핏발선 원수의 눈초리를 보내게 하고, 소잣(우유)을 먹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안기 보다는 먼저 들이받는 소와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은가. 풍요가 가득한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듯 황폐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 한구석이 허허하고 메어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 하나의 광고문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사랑하고 불의에 맞서며 희비애락을 함께 나눌줄 아는 우리의 종요로운 정신문화를 하루속히 되찾고 정착시켜야 한다.

〈민족음악원 원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조계종-대각회 '법인정관' 논의

종단방침 수용의사

조계종 소속 법인들에대한 종단의 '정관개정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이 시작됐다.

조계종은 21일 대각회와 실무협의를 개최해 종헌 제 9조3항(본종 소속 승려가…법인을 설립했을때에는 그 정관에 해당 법인이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여야 한다…)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논의 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측에서 총무부장 혜창스님 기획실장 지홍스님 총무국장 지현스님이 대각회측에서는 보광스님(정토사주지) 대원스님(보국사주지) 효경스님(법안정사주지)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대각회는 종헌 제9조3항과 관련된 종단의 지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종단과 대각회는 대각회의 정관개정이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인만큼 개정에 앞서 대각회는 종단의 방침을 소용한 '대각회 내부규정'을 제정토록하고 그에 상응해 종단에서도 그간 규제했던 행자교육과 장학금수여 혜택등을 해제키로 했다.

신륵사 분리징수 잠정보류

여주군, 종단 · 사찰 '합동' 강경 입장따라

여주군청(군수 박용국)은 신륵사(주지 세영)의 문화재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분리징수 방침을 잠정 보류했다. 여주군청은 9월1일부터 문화재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를 분리징수 하겠다는 입장을 신륵사에 알려왔으나 사찰과 종단의 강한 반발에 따라 8월 28일 잠정보류를 결정했다.

신륵사는 군청이 분리징수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산문폐쇄와 공원지역내 체육시설지구에 편입된 신륵사 소속 토지에 대한 반환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체육시설내 사찰토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군청에 전달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 29일 산문폐쇄

공단측 분리매표 강행에 '대응조치'

속리산 법주사(주지 혜광)가 8월29일 낮12시40분을 기해 산문을 폐쇄했다.

법주사의 산문폐쇄조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날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를 강행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산문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법주사는 인상된 요금의 합동징수가 합의되는 시점까지 산문을 폐쇄하고 앞으로 종단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법주사는 지난 16일자로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했다. 이와관련 관리공단은 분리매표를 강요해 왔으나 법주사는 합동징수를 고수해 왔다.

연예포교 '무대가 좁다' 9면
스님들 시민 · 환경운동 '앞장' 19면
사찰 도난 · 방화 예방 시설 3면
가을독서 수상집과 함께 14면



국내 최초
차안에서 보는 내 차의 주행정보-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탄생

전국 어디서나 자기차량의 현재위치 표시, 진행방향 확인은 물론 관공서, 호텔, 병원, 골게이트 등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등 상세한 정보까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도, 막막한 초행길도 -
이제,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현대 HNS-2000과 함께 달려보십시오.

현대 HNS-2000 구성품

현대HNS-2000주요기능
· 현재위치 표시기능 · 현재지역 정보 및 서비스 기능
· 지도 축소/확대 기능 · 경유지 및 코스설정기능

Car Navigation System이란?
GPS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 차량에 설치된 컬러모니터 화면의 지도에 자기차량의 위치, 방향표시 및 각종 편의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항법시스템입니다.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

사 설

오지에도 불음을

조그마한 섬에 있는 유일한 사찰이 폐사위기에 있는 것을 어느 노보살의 불심으로 5년만에 복원됐다. 그러나 포교와 수행을 위해 이 절에 주석하실 스님이 없어 안타깝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본보 제140호〉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충남 보령시 어천면 낙도 삽시도에 위치한 보해암이 바로 이 사찰이다. 더욱 우리 불자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이 섬에 기독교는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선교에 몰두한 결과 두 개의 개척교회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불교의 처지는 이렇게 절이 있어도 이를 호지하고 포교할 스님이 없어서 불자들이 기독교 등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불교 1천6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상징이다. 한국불교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문화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떨어진 지역의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정신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러한 낙도나 산간지 또는 농촌 등의 오지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종단이나 범불교적 차원에서 이러한 특수지역의 포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으로 자랑하고 있는 조계종단은 승가중심의 수행종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신도들은 교단으로부터 방치되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포교정책, 포교전략에 문제가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포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나 낙도의 포교전략은 우선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생활양식 및 태도에 걸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지역 포교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지역에서 수행과 포교할 성직자를 특별히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자격을 갖춘 스님은 3~4년 이러한 특수지역에서 포교를 담당하고 나면 종단차원에서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충분한 재원마련이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낙도나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암연합회나 불교단체협의회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역별 불교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책과 연계하여 열악한 포교현실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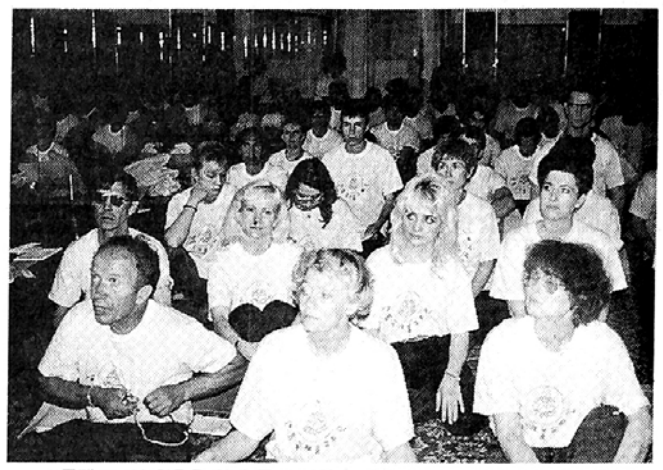
셋째, 종단의 포교원이나 종단협의회 등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특수지역포교위원회'와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서 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포교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지역의 설법자료집,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자료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문화활동과 관련된 신행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의 건설도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다.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마련, 불교만이 가질수 있는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생활불교를 편다면 주민들에게는 종교적 기능을 초월한 삶의 귀의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열린마당

국제포교사

최근에 펴낸 문화체육부 자료에 따르면 불교의 해외파견 포교사는 2백5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개신교 천주교는 각각 5천5백90명, 3백33명이었다. 한국불교의 국제화 수준이 매우 미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95년부터 배출해 오던 국제포교사 양성과정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중단된 상태다. 기존에 배출된 국제포교사도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포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제포교사 활용을 위해 주요 사찰에 외국인법회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외국인법회 모습.

국제포교사 현황

성수〈조계종 포교국장〉 "교리-어학 겸비 인재확보 절실"

국제포교사는 불교에 대한 이해와 영어구사 능력을 겸비한 고급자원이다. 포교원은 서류심사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국제포교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95년부터 6개월과정의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설치, 2년동안 21명을 배출했다. 활용은 추후 문제라는 것이 포교원의 입장이다.

영어구사능력과 불교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언젠가 불교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지난 해와 95년 국제포교사 시험을 거쳐 배출된 인력들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서 외국인 안내를 맡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장은 좁은 의미의 국제포교, 즉 해외포교에 활용될 소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초파일 등 불교행사 뿐만아니라 월드컵대회 국제청소년캠프 등 각종 국제행사에 이들을 통역 및 진행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교원의 행정력이 불자 개개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95년초 카자흐스탄에서 포교하는 한 스님으로부터 현지포교를 지원할 인력파견을 포교원에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파견하지 못했다. 포교원의 명을 받고 외국에 나가 포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종책에도 투자개념의 도입이 절실하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종책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불교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내년 예산편성에 국제포교사 양성 또는 연수과정을 다시 운용키 위해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심산〈통도사 부산포교원장〉 "외국실정 맞는 포교프로 개발"

산중불교를 지양하고 도시로 나와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70, 80년대 주제였다면 90년대는 도시에서 세계로 관심이 커져가야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불교를 인식시키고자하는 국제포교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한 반면 아직 우리의 준비나 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포교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현재 통도사 부산포교원 내에 국제포교부를 두고 국내부와 국제부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국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참선 문화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부는 몽고 미얀마 등과 교류를 통해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포교를 펼치고 있다.

선진국보다 저개발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그들에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부터다. 몽골국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불교경전의 몽골어화 작업을 추진하고 미얀마 사찰스님들의 컴퓨터 교육과 영어회화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국제부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외국인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정보가 없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불교관련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포교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포교를 어렵다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과감히 변화시켜나간다면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한다.

양장운〈국제포교사 2기〉 "주요사찰마다 외국인법회 개설"

먼저 국제포교사를 활용치 못해 양성과정을 없앤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화는 우리의 선호와는 상관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다. 국제화의 다른 표현은 외국, 외국인과의 교류가 일상화되었으며, 외국과의 교류가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포교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당장 국제포교사를 그 이름에 걸맞게 외국에 보내 포교토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커 쉽지 않다. 여건이 안되면 국내 외국인포교에 활용하면 된다. 조계사에 가면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들려 이곳 저곳을 둘러본다. 법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고개만 쭈뼛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계사 뿐만아니라 관광사찰이면 예외없는 현실이다. 이들의 안내에 국제포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월 1회 정도 사찰방문 외국인안내를 의무화해 자격갱신에 반영하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주요사찰에 외국인법회를 개설, 국제포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왜 부처님께 절을 하는가만 일러주어도 불자화는 멀더라도 한국불교를 아는 외국인이 될 것이다.

차제에 종립학교인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대학원 과정에 국제포교학과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또 종립기관에 근무중인 국제포교사를 해외에 파견, 포교활동을 근무로 인정하는 방법도 연구해볼만 하다. 국제화라는 큰 흐름에 불교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8월초 조계종 총무원과 언론사들의 초청으로 고향 확인을 위해 입국한 캄보디아 거주 훈할머니의 통역은 불교인이 아닌 타종교인이 맡았다. 현지 선교사의 딸인 15세된 김유미양이었다. 한국불교가 '우물안 개구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조계종에서 국제포교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 그러나 이때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스님들이 외국에 거주키 위해 필요한 서비스, 즉 비자발급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이었다.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과 포교원심의 등의 요건만 갖추면 총무원에서 임명장을 내줬다.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간 인원이 1백5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에 나가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4년 개혁회의 출범 이후 기존의 국제포교사 양성제도도 개혁됐다. 양질의 국제포교사를 양성키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에따라 6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쳐 1차인 95년 12명, 96년 9명이 배출됐다. 포교원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포교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이들은 지난 해와 올해 봉축행사 때 외국인안내 자원봉사를 맡기도 했다.

28개국에 258명 불법 전파

양성과정 예산삭제로 중단

그러나 올해들어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이 폐지됐다. 배출만했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종회에서 아예 예산을 삭제했다. 총무원청사 신축 등 신설된 예산항목에 밀려난 것이다. 포교원은 내년도 예산에 국제포교사 양성에 따른 예산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영어구사 능력과 불교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우수 인력들을 갖춰놓으면 언젠가 불교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교발전을 위한 투자개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순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올 11월 정기예산종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종회는 95년에 2천5백만원, 96년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었다.

한편 문화체육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는 2백58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48명 일본 45명 순이다. 러시아 캐나다 남아공화국에 각 4명, 벨기에 대만 싱가폴 프랑스 등은 1~2명이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 대 만 평

박구원



우화

생활 속의 불교 (136)

하심할 줄 아는 삶이 곧 바른 삶이다

"아집 아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쉬고, 모든 경계를 마음으로 안아들여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나를 고집하는 마음은 불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항상 하심하고 상대를 공경한다면 그것이 곧 불법에 귀의하는 길이다. 마음의 고개를 숙여라. 겸손하라. 내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

내 몸과 네 몸이 둘이 아닌 것을 모르고, 내 자리 네 자리가 둘이 아닌 것을 모른다면 한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세상에 '나'로 태어나서 이제는 내 의지로 일하고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고로 나는 '나'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독립된 인격체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남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로서 나를 위하고 나를 아낀다. 그러기에 남과 경쟁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도 사양하지 않는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남을 돕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다 좋기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은 '이기는 나', '으뜸가는 나'이다. 그런 '나'일 때 우리는 대체로 살 맛을 느낀다.

나무로 비유하면 언제나 잎·가지가 무성하고 둥치가 굵고 뿌리가 튼튼해서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나무일 것이다.

그런데 모양 좋게 잘 자란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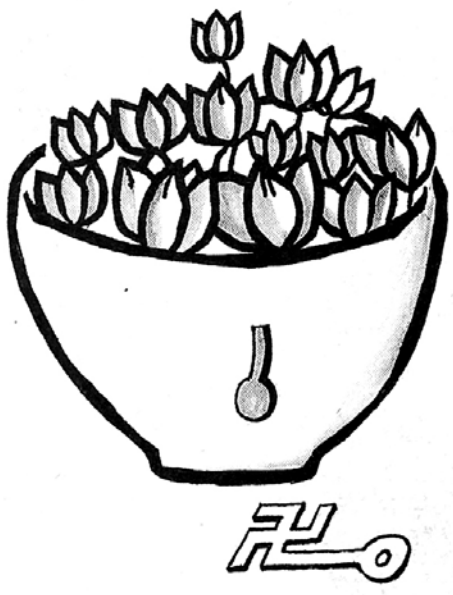
아니다. 대기와 태양과 토양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나무는 생명체로서 그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대기·태양·토양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독립·개별적인 존재일 수 없다. 그러고 싶어도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사람도 그점에선 다르지 않다.

단 한 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고 살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영양공급 없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나'로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닫혀있는 조직체계'가 아니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이는 '열려있는 조직체계'인 것이다. 안과 밖이 둘이 아니요, 안과 밖은 서로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주고 받아야 하는 하나의 체계인 것이다. 이 관계는 생명체와 자연 사이에서만 그러한 게 아니라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남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덕분에 잘 지내고 잘 살아 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덕분에 살고 덕분에 먹고 덕분에 쓰고 덕분에 듣고 덕분에 말하고 덕분에 보고 덕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다 하지 않으랴.

그러니 어찌 저 혼자 잘났다고 하랴.

뺨 한 쪽만 나눠 주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하거늘 나를 살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데 어찌 은혜를 모른다 하랴. 어찌 겸허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앞에서 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생명은 단 한순간이라도 독립적일 수 없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으면 생명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순리요 자연의 법칙이자 질서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그 속에서 숨 쉬고 살아야 한다. 함께 흘러야 한다. 거슬려서는 안된다. 아니, 거스르면 그것은 곧 파괴를 뜻한다. 역리(逆理)는 고통을 낳고 건강을 해치고 싸움과 갈등을 불러온다.

아집·아만·욕심·집착 따위는 다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나·너, 안·밖이 둘이 아닌 체계에서 나를 고집하고 안과 밖을 가르는 일이란 체계를 거부하고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덕분에 사는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니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나를 낮추는 마음가짐, 겸허해 할 줄 알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삶이 곧 사람다운 삶일 것이다.

협 찬 : 주 인 공

"CCTV·감지기 비용이상 효과"

사찰 도난·방화 예방 시설은 무엇

사찰들이 '방화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산에서만 올들어 10여건의 크고 작은 방화및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경찰의 방호망을 피해 하루에 네번씩이나 불을 지르기도 했다. 북한산 사찰을 찾는 불자들 사이에 '불교테러'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8월16일 경찰에 '사찰화재전담반'이 구성됐으나 8월 25일 불교텔레비전에 또다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찰화재와 도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찰화재와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CCTV 도난을 막기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CCTV(감시용카메라)다. 최근들어 사찰방화및 도난사건이 잇따르자 김천 직지사와 보은 법주사 등이 설치했으며 몇몇 사찰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 조계사, 강화 전등사, 경주 기림사 등에서는 감시용카메라를 설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는 도난뿐 아니라 방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찰에서 가장 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4대(옥내2, 옥외2)의 CCTV를 설치할 경우 비용은 약 5백만원 선이다. 여기에는 모니터(흑백), VTR, 화면분할기, 전원공급기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이같은 CCTV를 제작및 설비하는 전문업체로는 삼성방재(707-0088) 범한산업(737-1201), 미향전자(279-3949)등이 있다.



◇CCTV를 설치하면 사찰 곳곳의 생활을 한눈에 볼수있다. 사진은 조계사 모습.

CCTV **스프링쿨러**

24시간 침입자 '불침번'
화재발생 피해 최소화
소방 설비업체 전국 2천여곳

감지기 실내·외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 설치해 침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경보수신반에 전달,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장치다. 이같은 감지기의 종류는 적외선열감지기, 입체열감지기, 유리파손(진동)감지기 등을 비롯 약 20~30종류가 있다. 적외선 열감지기의 경우 1조(2개)에 25만원, 입체열감지기의 경우 1개당 18만원이 며 이밖에 감지기는 10만원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감지기류를 제작및 설비하는 업체로는 세운전자시스템(274-3970)이 있으며 이밖에 웬만한 전자기기를 다루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소화기 가장 기본적인 소화설비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소화기의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분말, 하론, 이산화탄소를 성분으로 하는 소화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스프링쿨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감지기나 스프링쿨러 헤드가 개방되어 자동적으로 물을 분무시켜주고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다. 스프링쿨러는 습식과 건식 2종류가 있다. 습식설비는 물이 헤드까지 차있어 실내온도가 73℃이상일 경우 분무되는 설비이며 건식설비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기가 감지해 헤드를 동작시켜 분무된다. 이 설비는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내·외 소화전 화재발생시 소방차에 곧바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며 동력소방펌프도 포함된다. 이는 상수도나 지하수 배관에 연결하면 된다.

기타 물분무등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시설(감지기류),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가 있으며 피난설비로는 인명구조설비, 유도등 등이 있다. 소화활동설비로는 제연, 연소방지, 무선통신보조설비등이 있다.

그러나 사찰을 전소시킬 목적으로 방화범이 다량의 유류를 사용해 불을 지를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설비는 대부분 건물의 구조나 위치에 따라 설비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설비업체와 협의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설비및 제조전문업체는 세진방염(785-1190), 금성방재(922-9601)등을 비롯 약2천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각 사찰에서는 관련업체와 상담한다면 귀중한 성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김중근 기자

목어

국민교육 도량

"TV가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하루종일 혼자 집에 머무는 어느 할머니의 말이다. 아침드라마, 뉴스, 씨름중계, 일일극, 동물의 세계, 주말연속극, 노래자랑 등이 이 할머니의 단골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면 TV는 할머니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세상소식과 교양까지 얹어주는 친구역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들이 이 할머니처럼 자기에게 유익한 프로그램만을 선별해서 시청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 저질쇼를 선호하고 주부들은 속빈 드라마 중독중에 걸려 아까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거리의 학생들을 보노라면 한심할 때가 있다. 허리춤 아래에 걸쳐 입은 바지는 땅을 쓸고 다닌다. 일본소녀 같은 차림새와 머리모양 등이 역겹기만하다. 10대들의 그 팻션을 'TV로 찍어낸 붕어빵'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TV화면에 비친 10대 연예인들의 듣기 민망한 노래, 보기 민망한 옷차림, 몸짓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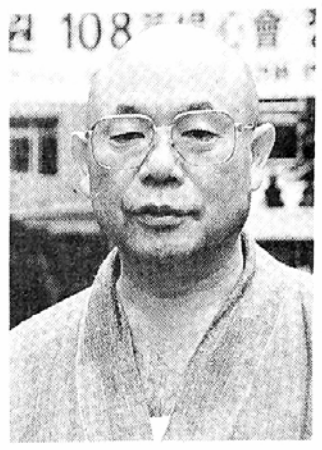
'겉볼 안'이라는 말이 있다. 외모가 그럴진데 속은 어떨 것인가.

청소년 프로그램뿐 아니다. 여성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의 심각성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불륜, 폭력, 물질만능의 허영심조장등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드라마가 1주일에 30여편씩 방영되고 있다. 이제 TV는 바보상자가 아니라 유해독소를 뿜어내고 있다.

어느 여성시청자는 인기 드라마에 빠지다 보면 일시적이지만 여자 주인공의 말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 했다고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얼마나 무서운 세뇌인가. 내용이 건전하면 더없이 좋은 세뇌일 수 있다. 그러나 불건전 드라마가 더 많은 것이 문제다.

청소년이 시들고 주부와 여성이 병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TV는 바로 국민교육도량이다. 시청율도 좋고 상업성도 외면할 수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말보다 텔레비전을 더 믿는다'는 현실을 바로 보자. 가을 프로그램 개편때는 'TV는 청소년 무법지대, 폭력, 외설 무방비상태'라는 비판에 눈돌려 새롭게 변신하길 바란다.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성해 스님

"정신까지도 쇄신하는 마음으로"

선수행도량 거듭나기…34년만에 새 단장

"이번 불사의 의미는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34년만에 선학원 중앙선원을 단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선수행의 전통을 지켜온 도량으로서의 역사성을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한국불교의 정화사를 정리함으로 선학원이 우리 시대 불교성지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9년간의 미주 전법활동을 마치고 지난해 귀국하면서 선학원중앙선원장을 맡은 성해스님은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선학원중앙선원 중창불사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스님은 "여러가지 어려움도 예견되지만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이번 불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혔다.

무엇보다 스님은 이번 불사를 통해 한국불교 선수행의 기풍이 다져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스님은 선학원중흥불사 1천일기도 즉, 100일씩 10회에 걸쳐 이어지는 '학국불교 전통선수행 중흥영산대설법회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1천일기도의 회향일에는 선학원 창건 사적비와 한국불교계 정화불사 기념비를 제막하고 선학원중앙선원이 이 시대 불교성지임을 선포하는 의식도 가질 예정이다.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의 설법회(9월4일 오전11시)로 시작되는 천일기도에는 영축총림방장 월하스님 고불총림방장 서옹스님 덕숭총림방장 원담스님과 석주스님(칠보사조실) 성수스님(법수선원조실) 범행스님(팔달선원조실) 벽암스님(신원사조실) 서암스님(조계종 전종정) 정일스님(보광사조실)이 설법회에서 설법을 할 예정이다.

당대 최고의 선승들이 연이어 여는 설법회 자체만으로도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의 의미는 확인된다는 것이 성해스님의 신념이다.

성해스님은 "중흥불사라고 해서 건물을 보수하고 새로짓는 일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찰건물불사를 계기로 이시대의 정신까지도 쇄신되어야 하는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이런측면에서 스님은 선학원중앙선원이 일반불자들에게도 선수행의 모범도량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선가귀감〉을 교재로 하는 선학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선학원 초창기부터 개설됐던 '부인선원'의 맥을 잇는 '시민선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해 각종 선수행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재단법인선학원이 조계종단과 편치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된 이번 불사와 관련 성해스님은 "종단과 재단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어서 정치적으로 잘 풀어질 것으로 믿으며 이 불사는 선학원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시대적 역할을 고양하자는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교구본사 중심제 失보다 得많다"

선우도량 '교구본사 역할…' 의견 다양

지방자치화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변화속에서 불교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종단운영체제르 교구본사중심제가 제시됐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8월27~28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제13회 수련결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수련결사에 참석한 30여명의 스님들은 다종교사회에서 국가권력으로 부터 불교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든 종도의 힘이 결집되는 중앙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교가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켜내며 대중정서가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구본사중심제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구본사제도의 성립과 그 역사'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동출스님(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실장)은 "현재의 교구본사제도가 문중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폐단을 낳고 있으나 제도 자체를 바꾸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다"고 전제하며 "각 사찰마다 역할을 특성적으로 살리며 불교정신과 승가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구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광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은 현 교구본사제도의 원형이 일제에 의해 봉치기구의 하나로 만들어진 사찰령과 30본산제도라는 점에서 교구본사제도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법인스님(대흥사총무)은 "사찰령이 일제에 의한 제도라는 측면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고 반론했다. 법인스님은 또 교구본사제도가 중앙과 지방의 역할 위상이 달라지는 지방화시대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중중심 탈피 승가정신우선"
각 사찰 총림제 운영 의견도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교구본사제도의 원류를 초기불교의 승가공동체 조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혜담스님(각화사 주지)은 "초기불교시대에도 (男·dhatu)를 통해 지역분권을 이루며 지역에서의 자율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부처님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주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며 "현재의 종단운영도 완전한 본사중심제로 제도를 바꾸고 중앙에서는 종지 종통 및 승규에 관한 것을 통괄하는 등 중앙집권주의적 지역자율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행정중심으로 정치화 관료화되어 있는 현 교구본사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제3발제에서 사찰특화 운영을 제시한 법인스님의 주장(본지140호1면 참조)에 덧붙여 각 사찰을 총림체제로 운영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조강연에 나선 벽파스님(범어사 금강암)은 "각 교구본사가 나름대로 대외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행의 병행을 통해 대중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중이 고착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찰이 총림체제를 통해 전래의 가풍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중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사=김정은 기자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겐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Ⅰ, Ⅱ
- 불국사·석굴암 Ⅰ, Ⅱ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장엄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초 공개.



▲ 고려대장경 Ⅰ, Ⅱ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집',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교차로

길상사 창건기념 대법회



법정 맑고 향기롭게모임 회주는 2일 길상사 창건기념 대법회에서 법문한다.

불교병원 건립기금 기탁



현근 조계사 주지는 8월 27일 98년 일산에 세워질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동국대에 기탁했다.

도왕스님 13주기 추모법회



종열 화엄사 주지는 24일 각황전에서 증창조 도왕스님 1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BBS '자비의 전화' 진행



혜담 불교방송후원회 회장스님은 3일부터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을 맡는다.

감로심장회 사무실 이전

보운 감로심장회 이사장스님은 8월 27일 진주 귀빈예식장에서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사무실이전 개원법회를 가졌다.

일일장애체험학교 열어



지현 두송종합복지관장은 8월 22일 몰운대복지관에서 중학생 1백40여명을 대상으로 일일장애체험 학교를 열었다.

'대화의 정치…' 출판 기념회



고홍문 한정회 고문(前 국회부의장)은 5일 오후6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저서 〈대화의 정치 화합의 정치-민주의 피안을 향하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97 후기 학위수여식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8월 22일 중강당에서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석·박사 및 연구관리자과정 4백4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태고종 강원교구 기획실장



이선행 법사는 8월 21일 태고종 강원종무원에 신설된 기획실 실장에 임명됐다.

불교도서 독서감상문 모집



박중현 전국교사불자회장은 9월 1~10월 31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불교도서 독서감상문을 모집한다. 초등학생은 2백자원고지 5~10장, 중·고등학생은 8장~15장내외. (02)995-2911

부산교육대 수화반 수료식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장은 8월 25일 동대학 강당에서 제1기 수료식을 봉행했다. 수료생 51명이 등록해 26명이 수료한 수화반은 수료기간중 심여회라는 수화합창단을 결성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성우원 파라미타 수련캠프 등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직지사 학인스님에 장학금



녹원 직지사 주지는 8월 26일 동국대 이사장실에서 직지사 교구내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에 재학중인 학인 10명에게 7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통혼례문화 교류대회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8월 21~23일 힐튼호텔에서 제3회 아시아 전통혼례문화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말레이지아 인도 태국 등 10개국의 고유 전통혼례 의식과 의복이 소개됐다.

동국대서 특별공로상 받아



탤런트 유하영씨는 8월 28일 동국대학교로부터 모교를 빛낸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불교용품점 보현심 개업



이아영 우리는선우 총무는 3일 종로구 공평동 제일은행본점옆에 불교용품점 '보현심'을 개업했다. (02)722-4435

'진흥원 소식' 발간

월1회 사업내용 홍보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불교를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려주는 〈불교진흥원 소식〉을 1일 발행했다.

월 1회 발간되며 다보법회 안내와 불교문화센터 프로그램 소개, 시민공개 강연 다보문화강좌, 다보수련원 소식, 계간〈불교와 문화〉등 출판물 간행소식등을 실었다. (02) 719-2606



◇박용기위원



◇이선미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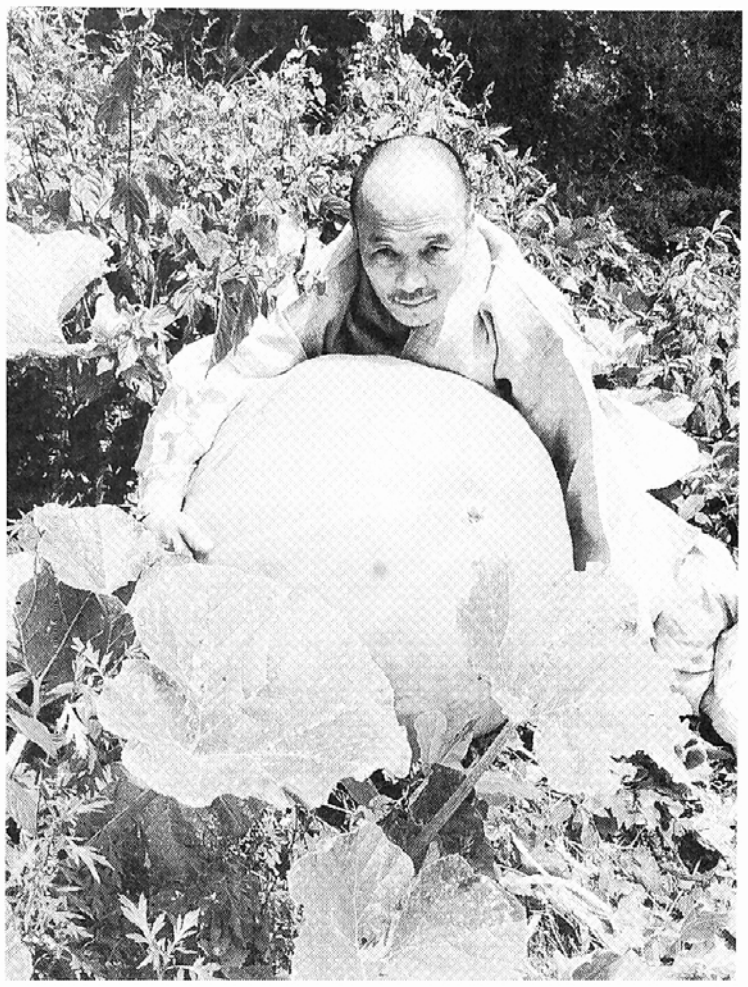
◇손경현차장

BBS 박용기위원 총리상 수상

방송 70주년 방송유공자 포상

박용기 불교방송 방송위원은 '방송 70주년 방송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불교방송 이선미 편성제작국 국장대우는 공보처 장관상을, 손경현 기술관리부 차장은 한국방송협회 회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시상식은 3일 오전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Focus 스님품에 안긴 가을

엄청나게 큰 호박(둘레 186, 높이 56㎝)이 절에 열렸다.

충남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계곡을 따라 깊숙히 들어가면 토굴 여래사(일명 용화사)가 있다. 그 절 뒷산에 한아름이 넘는 약호박을 비롯 '호박 7형제'가 마치 을 가을 풍년을 상징하듯 익어가고 있다.

호박을 조석으로 돌보는 주지 혜운(慧雲)스님은 아직 더 자라 잘 익으면 부처님께 올린후 동짓날 대중공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님 품안에서 가을이 익어가듯 중생의 불심도 그렇게 익었으면 좋겠다.

여래사(0458)31-2765

사진=고영배 기자

게시판

♣ 강좌

불교교리 및 문화=불교방송 3층 불교돈화센터는 불교교리 및 문화를 쉽게 하기위해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리는 3개월 과정의 제20기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능엄경등 불교교리강좌, 불화그리기등 불교강좌, 불교전통꽃꽂이등 전통교양강좌, 요가등 건강강좌, 해외영어등 어학강좌, 아나운서입문등 커뮤니케이션강좌, 서화강좌, 구연동화교실등 유아강좌, 과학·창의력교실등 어린이강좌가 열린다. (02) 703-0108

동국TV불교 아카데미=불교TV의 '동국TV불교 아카데미'가 97년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계율의 전개, 한국불교사 특강 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8시에 방영. (02)260-3728

메이크업=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9일 오전11시부터 메이크업 공개강좌를 마련한다. (042)633-1141

기초교리반=불광사·불광대학이 기초교리반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백명이며 개강은 3일, 주간반은 오후2시부터 야간반은 오후7시부터 2시간씩 강의가 진행된다. (53)656-6766

♣ 모집

원효불교대학 신입생모집=대구 원효불교대학(학장 증악스님)이 10월 9일 개교를 앞두고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과과정은 초급 주·야간 3개월 과정과 중급반 6개월과정 고급반 1년과정이다. (053)563-9154

동화구연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3개월 과정의 동화구연교실을 연다. 모집인원은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반 각 25명이다. (02)852-0525

♣ 수련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6일부터 7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낙산사 흥련암 신흥사일대에서 자원봉사자 수련회를 개최한다. (02)734-0612~3

"수준높은 자원봉사 기대하세요"

종파초월 강릉봉사협 결성 정 복 현 회장



"종파를 초월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돼 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전문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봉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일 강릉시 한국전력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는 강릉자원봉사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정복현(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씨는 "협의회 발족이 한쪽으로 편중된 자원봉사활동을 분산시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회장은 7천~8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전문화시켜 관내 어느곳이나 원하는 시간, 필요로하는 곳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지역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6월부터 종교단체 위주로 추진돼온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릉YMCA YWCA, 천주교 영동지구 등 강릉지역 30여개 단체가 가입하여 결성했다.

정복현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이사장 부동스님)에서 위탁운영하는 강릉사회복지관장으로 현재 한국사회복지협회 강원지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수련회 활성화·친목도모 주력"

미타종 전국신도회장 박 종 일 씨



"창립단계니만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신도회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종단의 제의를 몇차례 고사하다 불교발전을 위해 결국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는 박종일씨(46·경기 이천 염불선원 신도회장)는 부처님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로 신도회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까지 전국적 규모의 신도회로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단 신도회의 모범사례와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신도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전남 등 6개지회를 비롯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박회장은 수련법회를 활성화하고 사회문화, 학술, 복지 및 연구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민족생활의학회 3,000,000원 △광림사 장애인 불자들 500,000원 △송계사 310,000원 △공주대학교 학생일동 208,950원 △부처님마을 197,000원 △네팔인 불자들 180,000원 △방글라데시인 불자들 30,000원 △정토 제4차 역사기행 참가자 일동 45,000원 △도문큰스님 900,000원 △양영우 450,000원 △오현수, 양윤덕 200,000원 △박양미 171,000원 △밥한공기 나누기 운동 157,000원 △한끼굶기운동 3,295,000원

〈8월 27일 현재 총 800,661,027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에서는 천년고찰의 전통 문화 환경을 보존, 복원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교 종합 단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보광사 전통문화 환경 보존 사업 (환경 정화 및 개발 사업)
2. 사업범위 : 경내지를 제외한 보광사 부지
3. 사업내용 :
   1) 사하촌(상가) 정화 사업
   2) 불교 문화 타운 건립
   3) 납골당 및 장례예식장 건립
   4) 레저시설 및 상업시설 건립
   5)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실버타운 건립
4. 사업규모 : 시행사와 협의 조정
5. 사업기간 : 1997년~2002년(추정)
6. 사업시행방법 : 단계별 시행 - 협의

※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0348) 942-7700/1(보광사 종무소)

대한불교 조계종

보 광 사

수강생모집 10월 8일 개강

이제 한국불교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전세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미래 한국불교의 전법 역군을 모집합니다.
해외에서 포교나 수행 또는유학을 원하시는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포교(통역)과정 (3개월)
스님이나 법사(포교사)자격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불교영문으로 된 불교서적의 영어 위주의 교육으로 해외에서 교포는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강의시간 : 매주 수,토요일 오후 4시~6시/수강료 : 매월 15만원

⊙ 해외수행과정(3개월)
해외의 사찰에서 직접 수행경험을 쌓고 싶으신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회화위주)와 불교문화사 등 해외의 외국사원에서 수행하는데 갖춰야할 기본지식 및 적응력을 지도함
☛강의시간 : 매주 수,토요일 오후 3시~4시/수강료 : 매월 10만원

⊙ 해외 유학과정
불교관련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을 위하여 원하시는 대학에 유학을 추천, 알선하여 드림

⊙ 국제행사 및 통역
다년간 국제불교활동과 행사·회의 참가경험 그리고 완벽한 불교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으로 국제행사 및 회의등을 대행하여 드림

⊙ 해외 동행 성지순례 및 각종 국제행사, 회의참석
해외의 불교성지나 각종 불교 국제행사 및 회의에 동행하여 의사소통과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를 도모하여 드림

※ 법사 및 삼장법사 과정(1년/통신)
※ 불교의식(범음범패)과정 (3개월/야간 및 통신)

海東佛敎大學 附設
韓國佛敎海外傳法會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경동빌딩 302호
TEL. (02)741-0495~6, FAX (02)763-4603

◆ 보다 자세한 것은 전화, 서신문의하면 원서 및 안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경전강독=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수업료 : 2만5천원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 장 金 月 雲

진오스님의 헝가리 전법소식

석굴암·팔만대장경 소개하면 '감탄'

동구인 참선등 '관심'…한국불교 알리기 '기회'

티벳·日불교 이미 진출…현지어 교재 절실



◇진오스님

저는 헝가리에서 포교활동중인 장진오 입니다. 이곳에는 5년전 한국스님(법명 법전)에 의해 세워진 유럽 최대의 불탑이 있습니다. 높이 36m, 넓이 24m의 탑 중앙에 순수한 한국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유럽의 바다라 불리는 유명한 벌러튼 호수가 있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많은 유럽인과 헝가리 관광객이 한국의 불탑을 구경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날 때 한국불교를 세계인에게 알린다는 목적을 가졌지만 구경차 들리는 사람들에게 목탁과 염주, 연꽃과 향과 촛불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설명할 뿐 지속적인 연결이 안되어 답답한 느낌입니다.

탑을 구경오는 사람 가운데 20%는 불교를 접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티벳의식으로 참배하는 그들은 108염주를 목에 걸고 불자임을 자랑합니다. 헝가리 언어로 티벳불교를 소개한 여러종류의 책자가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티벳 스님들이 불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불자가 아니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존경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불교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탑에서 수련대회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좌선과 석가모니불 정근 그리고 불구용품을 이용한 불교음악을 연구하는데, 주최자가 일본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의식으로 진행합니다.

독일에서 불교를 배웠다며 법당에 들어와 좌선을 하거나 중국의 기공법을 불교의 분파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베트남 불자들이 참배를 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아는 사람이 없어 오기가 생깁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 부처님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면 한국불교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대해 놀라워 합니다. 특히 한국의 참선수행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좌선과 절하는 법을 알려주면 덩치 큰 사람들이 가부좌를 하거나 머리를 조아리려 애씁니다. 진지한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헝가리인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방학을 맞은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이틀간 여름불교학교를 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국식 108배를 합니다. 석가모니불 정근과 예불문을 힘차게 따라하지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마치는 날 수계식 연비에 임하는 아이들에게 헝가리 불교의 장래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 입니다. 반드시 상대국가 언어로 예불문, 반야심경, 부처님 생애, 좌선과 절하는 법이 통일된 교재로 마련돼야 합니다.

직접 부딪치면 한국불교의 가능성과 자긍심이 확인됩니다. 출가를 상의해 온 청년을 만났지만 그를 어떻게 인도할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불기 2541년 8월26일



동국대 석가여래상 개수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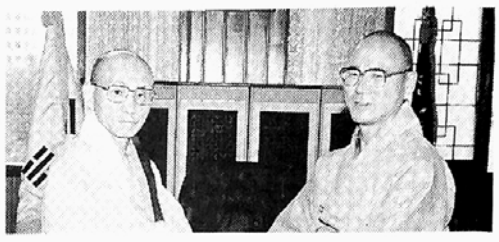
동국대는 8월 25일 교내 명진관앞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총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상봉안식을 거행했다.

높이 2m 50㎝의 석가여래 청동입상인 이 불상은 동국대가 불교종립대학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왔으며 1964년도 졸업생들이 11월 김영진씨의 작품으로 건립했다. 이번 봉안식은 93년도 중수를 한후 그동안 세월이 지나 조금 부식된 불상을 최근 다시 개금하고 보수하여 이루어졌다.

코미디언·연예인불자회 방송연기자회로 재창립

'코미디언·연예인 불자회'가 10월경 '방송연기자 불자회'(회장 박병호)로 새롭게 재창립된다. '방송연기자 불자회' 재창립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진오씨는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기존의 불자회를 일원화시켜 참불자회로 가꾸는 것이 재창립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가을경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큰스님을 모시고 재창립 법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연기자 불자회'는 단순히 탤런트를 대상으로 하는 불자회가 아닌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등 폭넓은 연기자들의 신행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 '방송연기자 불자회'는 박병호씨를 회장으로 전원주 서우림 선우용녀 연규진씨 등 10여명의 불심깊은 불자연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월주스님 기초선원에 3천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8월28일 기초선원 운영지원금 3천만원을 기초선원장 진허스님에게 전달했다. 스님은 또 제3군수사령부 법당건립 지원금 4천만원을 3군수사령부 장교불자회회장 남우현소령에게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 건립기금 2천만원도 전달했다. 이에앞서 월주스님은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위원장 효강)에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 1천만원을 소비자운동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봉녕사 승가대 대웅전 상량식

수원 봉녕사승가대학(학장 묘엽) 대웅전 상량식이 8월26일 지홍(조계종 기획실장) 정락(용주사 주지) 진관(진관사 주지)스님을 비롯 대학관계자 학인 동문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同승가대학 대웅전은 전통양식의 108평 규모로 98년 2월 준공된다.



자비의집-청구그룹 자매결연

노인무료급식소 자비의집과 청구그룹이 8월27일 대구아동청소년 상담소 강당에서 자매결연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청구그룹은 8월27일부터 1년간 매월 3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결연식에는 2백여 노인을 비롯 무공스님(동화사주지) 태일스님(대구사원련 사무총장) 김시학회장(청구그룹) 이상번회장(대한불청)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학 제7기 졸업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스님)은 8월 24일 조계종총무원 1층 법당에서 前포교원장 무진장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 김재일 동산반야회회장을 비롯 2년 전과정을 마친 제7기 8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의 최우수상인 포교원장상은 김진관씨가 수상했다. 무진장스님은 이날 축하법문을 통해 "직장과 사회에서 두려움없이 전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충북 첫 봉사단체 지장회 발족

복지시설·결손가정 위문

충북지역 최초의 불교자원봉사단체인 지장회(회장 여현정법사)가 9월 3일 청원군 문의면 지장정사에서 발족된다. 지장정사 여신도들로 구성된 5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과 지역사암연합회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봉사회는 간병인 및 호스피스 교육(매주 수·목·금 오후 2~4시) 개강식도 함께 열고 1달간의 교육에 들어간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충북지부(지부장 여현정)의 지원으로 수료증과 봉사단 단증도 수여해 전문적인 봉사단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호스피스교육은 혜도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인성교육은 일초(동학사 前강주)·무기(반야정사 주지)스님이, 염습법강의는 김정자원장(자광원)이 각각 맡는다.

앞으로 봉사회는 이같은 지속적인 간병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여현정회장은 "도내 불자들이 흩어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 안타까워 봉사단체를 만들게 됐다"면서 "간병인 교육등에 내실을 기해 어느 단체보다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봉사인력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0431)54-2258

우리 모임에선

피안복지회 전용회관 열어

96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자발적인 활동을 벌여 온 피안사회복지회(회장 송영철)가 8월 31일 자원봉사 전용 복지회관을 개관했다.

이날 복지회는 8월 18일부터 실시해 온 피안사회복지대학 제1기 수강생 50명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거듭났다. (032)881-8226

대불청 北돕기바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부(지부장 김장근)는 9월 7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청 청소년수련관에서 엄길청교수를 초청,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경제강연회와 함께 도일스님의 찬불가공연, 관오사청년회(회장 이한득)의 국악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장에는 북한동포돕기 식품바자회도 열린다. (053)764-5776

부산불교硏 참선·명상교실

부산 불교문화연구회(회장 임한석)는 9월 5일부터 3개월 과정(매주 금 오후 7시30분~9시)으로 명상·참선체조교실을 개설한다. 강사는 거해스님과 임한석법사. 생활역학교실도 연다. 同회는 지난 7월 27일 창립된 재가불자 신행모임. (051)441-7700

무학여고 btn 홍보전

무학여고 불교학생회인 '모디의 울림'(회장 박진희, 지도법사 법경스님)은 9월 5, 6일 학교축제를 맞아 불교텔레비전을 알리는 기획홍보전을 연다. 학생들은 주요 출연진을 비롯 제작과정과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는 한편 전시기간중 불교TV의 대표프로그램을 VTR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중에 컵과 연등을 제작판매, 각종 불사금도 마련할 계획.

대구산악회 지리산 산행

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9월 21일 지리산으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당일 오전 7시 동아쇼핑, 7시 15분 광장코아에서 출발. (053)426-7551

제주불교총련 팔관대재

제주불교총연합회(회장 종원스님·관음사 주지)는 28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전통문화 계승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팔관대재'를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법요식, 팔관대재, 영산재시연, 관등법회 순으로 진행된다. (064)22-2829

동국대 신행수기 공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생회(회장 이인철·불교2)는 10월31일까지 전국 각대학 불자들을 대상으로 신행수기를 공모한다.

생활불교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신행수기의 주제는 △일반신행 △신행단체 및 수련회 통한 신행 등이며 분량은 2백자 원고지 20장이다. 또 이번 신행수기 공모전 입선자 5명에게는 총 2백여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 (0561)770-2737

수상법당회 남순지장회 초청

대한불교방생법회 수상법당신도회(회장 이건호, 지도법사 혜암스님)는 8월 20일 귀순불자들의 모임인 남순지장회(회장 김명철) 초청법회를 가졌다.

수상법당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법회에는 3백여명의 신도와 남순지장회 회원가족 20여명이 참석.

우리 생애 찾아온 최고의 기쁨
이 시대의 위대한 정신적 스승 Suma Ching Hai의 주옥같은 강연 모음집



즉각 깨닫는 열쇠

현대인을 위한 최상의 필독서

어려운 문자사용을 피하고 간단명료한 구어체로 이루어진 Suma Ching Hai의 강연은 美하버드大와 U.N. 아시아와 유럽등 세계곳곳에서 깊은 감동을 일으켜왔습니다.

"깨달음 이란 무 엇을 말하는 가", "불 교 와 기독 교 의 차이 ", "전쟁의 원인은 무 엇인가", "이 세상 너머의 신비....." 등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내용을 통해 독자들은 어느새 "왜깨달아야하며, 즉각적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게될 것입니다.

전 10권 /각권 값12 000원

●전국의 유명서점이나 아래의 연락처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서울 : (02)577-2158 · 부산 : (051)634-0065 · 대전 : (042)625-4801
· 전주 : (0652)70-3237 · 인천 : (032)579-5351 · 대구 : (053)766-3189
· 제주 : (064)24-5781 · 안동 : (0571)821-3043 · 광주 : (062)232-9613
· 청옥 : (0573)73-1399 · 예산 : (0458)35-2898 · 포항 : (0562)42-2562

SM출판사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 유덕빌딩 2층
TEL(02)576-1464, FAX(02)576-146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회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법회안내

정토사(02)683-5554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혜광스님
입장소멸 참아정진 매월24일(음) 밤10시~다음날 새벽5시

삼선포교원(02)922-9652
정기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오후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주지 지광스님
중고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초하루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11시

여의도포교원(02)784-9136
인등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직지사 서구포교원(063)557-3599
정기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자녀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7시30분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사(0391)43-2985
통합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강릉명주주 거사림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5시
관음불교 청년회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7시
불무리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일지사(02)878-3653
지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밀교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어린이 한자교실 매주 토·일요일 오후3시

한성포교원(02)207-8296
신중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사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6시

양양 낙산사(0396)672-244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도박 이겨도 져도 파멸에 이른다

서울시내 아파트 사무실 등에 비밀 도박장을 차려놓고 판돈 4백50억원대의 상습도박판을 벌여 온 중산층 주부, 공무원, 중소사업가, 조직폭력배 등 도박조직 10개파 2백2명이 8월 20일 검찰에 적발됐다. 하루 뒤 기업인과 유명 연예인 등 부유층 인사 40여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최근 1년여 동안 1천2백만달러(1백억원 이상)의 거액 도박판을 벌이고 외화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적인 파산은 물론 이혼등 가정파탄과 국가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망국병 도박. 부처님은 도박하지 말라고 5계로써 엄격하게 가르치셨다. 도박이 왜 금지돼야 하는지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이기더라도 미움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선생자경〉

▨재물에는 여덟가지 위태로움이 있어 손해는 있고 이익은 없으니, 그중 하나는 못된 아들이 도박하여 용도에 도가 없는 것이다. 〈중본기경〉

▨재산을 잃는 여섯가지 원인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여자를 밝히고, 도박에 빠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게을러 방일함에 젖는 것이니라. 〈아함경〉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버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숫타니파타〉

▨거사의 아들아, 여섯가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없애고 악도에 들어가나니, 여섯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술을 좋아하여 놀아나는 일이요, 둘째는 불시에 남의 여인의 방에 드나드는 일이요, 셋째는 도박에 빠지는 일이요, 넷째는 음악을 지나치게 좋아함이요, 다섯째는 나쁜 벗과 사귐이요, 여섯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니라. 〈선생자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한다. 〈사제경〉

▨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남의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해 독촉받는 것도 괴로움이요, 빚받을 사람이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 것도 괴로움이며, 빚을 갚지 못해 구속 당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중아함경〉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홀리어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갚음을 받으리라. 〈잡아함 빈리경〉

신행수첩


◇4일 생계사 육조정상탑전(일명 금당)에서 6조 혜능스님 1284주기 다례식이 봉행된다.

육조스님 1284주기 다례식

신라 의상스님의 제자인 삼법스님이 당나라에서 귀국하기전 "육조혜능의 정상을 모셔다 삼신산의 눈쌓인 계곡 위 꽃이 피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을 꾸고 육조의 머리를 취한 뒤 귀국하였다. 한라산 금강산 등을 두루 찾다가 지금의 쌍계사 육조정상탑전(일명 금당.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25호)자리에 옥천사를 짓고 혜능스님의 머리를 평장했다.

조계종 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철형)는 4일 오전11시 육조 혜능스님 1284주기를 맞아 바로 이 금당에서 그동안 3월불사때 육조봉찬회주관으로 탄신제에 맞춰올린 다례식과 함께 기일에 다례식을 갖기로했다. 선종의 소의경전인 〈육조단경〉을 설한 육조혜능스님의 기제사가 2백여년만에 다시 봉행되는 것이다.

은해사 보살계 수계법회

'보살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가난함을 구제하는 보배이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좋은 의사가 된다.'

부처님은 보살계의 중요성을 이처럼 가르치며 "중생이 보살계를 받으면 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오른다"고도 했다. 대구 은해사(주지 법타)는 10~11일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마련한다. 계사(戒師)는 일타 前 조계종 전계대화상이며 동참금은 2만원. (0563)35-3318

교수 21명 불교문화 강좌

동국대(총장 송석구) 사회교육원은 9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불교박물관대학(학장 문명대교수)을 개설한다.

봄·가을 학기로 나눠 진행될 이번 박물관 강좌는 '한국의 불탑' '한국의 사원건축' '중국의 불교조각' '경주남산의 미술' 등에 관해 정병조 권기종 이기동(이상 동국대)교수 등 21명의 권위있는 교수들이 강의를 맡게 된다.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줄 이번 강좌는 아름다운 유적과 유물을 통해 불교의 심오한 사상과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02)260-3728

혜국스님 '반야심경' 강설

〈대반야경〉 6백권의 사상을 한자 260자로 짧게 요약하여 그 진수만을 담고 있는 경전인 〈반야심경〉.

충북불교문화원(원장 송태석)은 9일부터 11일까지 혜국스님(제주 남국선원장, 충주 석종선원장)을 초청해 본원에서 반야심경대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개최될 이번 법회는 〈반야심경〉의 핵심사상인 공(空)사상과 경전해석 등을 법문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터득할 수 있는 반야(지혜)를 얻게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0431)221-6544

노인돕기 사랑나눔 바자회

생필품도 장만하고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에서는 무의탁 노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바자회는 9·10일 양일간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며, 5일까지 물품을 후원할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한다. (02)421-6077

유식사상·화엄경등 강의

불교교리의 훈고학적 해석이나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탈피 부처님가르침의 요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강좌가 있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는 9월8일부터 12월29일까지 선우교실에서 2학기강좌를 실시한다.

도법(선우도량 상임대표) 본각(중앙승가대교수)스님,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박성배(동국대)교수 등의 강사진이 진행할 이번 강좌는 △중관·유식사상 △화엄경 십지품 △불교의 체용사상 △불교와 건강 등 매주 월요일 오후7시에서 9시까지. (02)278-8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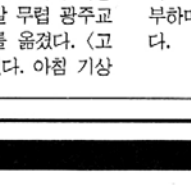
茶 시·음악이 있는 한마당

은은한 차향 속에서 시낭송회, 다도강연, 소리공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찻집이 마련된다. '우리차와 불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회장 이건국)는 21일 서면 흙다원(하나방)에서 우리 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를 통한 불자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다도강연, 어울림의 노래공양, 가야금 대금 등의 국악공연, 동참한 불자들의 즉석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불교발전을 위한 한마음의 자리로 꾸며지게 된다. (051)645-7871

나의 수행일기

'고왕경' 독송…좌절·위기 극복

詩作활동 통해 재소자 갱생 선도


조서익



내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난했던 시절이라 구호물자나 좋은 선물을 탈 생각으로 이웃 친구들과 함께 신흥교회에 많이 나갔다. 어떤 생각이나 종교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철부지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나에게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은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형님과 형님 친구분과 셋이서 동업한 사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면서 부터다.

그때가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70년대 초. 우리는 농기구 제작회사를 차렸다. 정부가 농촌의 근대화 운동을 벌이던 때라 전망이 밝을 것이란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형님과 친구분은 그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나는 직장에 매인 몸인데다 학교만 다녔지 사회와 사업에 전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없이 벌려만 놓았던 사업.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년여동안 어렵사리 꾸려 갔지만 파산하고 말았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상당기간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다. 이 사실을 아신 아버님은 나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왕경〉을 붼 글씨로 사경하고 그 유래까지 생각하며 열심히 독송하면 죽을 죄인도 방면하여 살아 풀려나오게 되며 나쁜 운명도 좋은 운명으로 바뀌어 진다고 하니, 모든 것 다 잊고 열심히 지송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고왕경〉을 읽어 나갔다. 50독을 하고 겨우 외울 수 있게되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각각 세차례씩 소리내어 독송했다. 차츰 마음의 여유를 찾아갈 무렵 광주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로 근무지를 옮겼다. 〈고왕경〉 독송은 그뒤에도 계속되었다. 아침 기상전이나 법무부에 교육가서 합숙할 때도 남들의 시선엔 아랑곳 하지않고 소리내어 열심히 독송했다.

〈고왕경〉 독송이 몸에 익어 생활화가 되어갈 즈음 직장에서 큰 위기를 만났다. 법무부 행정 감사반이 불시에 교도소로 파견되어 장부를 압수하여 암행감사를 시작했다. 당시 나는 자원교육중이었다. 원래 내가 교육갈 순서가 아닌데 교육 발령자가 안가려고 빼길래 그 동료 대신 자원입교했던 것이다. 여러 사람이 지적당해 시말서를 쓰고 어떤 직원은 파면당하고 징계받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나의 장부는 감사받지 않고 통과되었다. 감사반이 모든 장부를 다 볼 수 없어 중요한 것만 선별해 검열한 것이다. 갑자기 교육받으러 간 상황이라 장부정리도 제대로 못해 검열만 하면 나역시 시말서나 징계감이었다. 교도소를 뒤흔든 감사는 무사히 끝났다. 나는 부처님께 감사했다. 불법을 믿고 행하면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한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 졌다.

어느덧 교도 행정의 일선에서 일한지 30여년이 가까워 온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수없이 많은 재소자들과 만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진심으로 대화할 때 나는 내 직업에 고마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을 교정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부터 수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기 힘든 일이다. 시간 날때마다 나는 시를 습작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 또 불교에 관한 시도 지어보고 재소자들을 위한 글도 써서 교도소 소식지에 연재도 하며 문자공양에 정열을 다 기울인다. 내가 쓰는 한문장이라도 재소자들이 갱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그만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나는 계속 경전을 공부하며 거기서 느낀 감동을 글로 옮길 생각이다.

〈청송제2교도소 교무과장〉

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은 시리즈 이름입니다.

값 3,500원 / 46판, 각권 180~220쪽

민족사는 외형만 크고 내용은 빈약한 함량미달의 책 대신에
독자들에게 실속 있는 독서풍토를 만들고자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총서를 간행하여
지식의 대중화,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주머니 속에 넣고 떠나는 나의 작은 책!

책은 나의 발견자, 삶의 동반자!


1 새벽 삭발 석성우 스님 시인·파계사 주지
오랫동안 수행에 전념해 온 석성우 스님의 마음자리 맑히는 노력!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해준다.


2 선 석지현 스님 시인
선(禪)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다. 가능하면 이 책과 함께
매일매일 좌선의 자세로 앉아 보라. 그대의 의식은 비로소
그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될 것이다.


3 인연 서정주 시인
서정적 생명력이 있는 미당 서정주의 시와 산문들!
그의 시와 글 곳곳에 박혀 있는 산시의 향수.
우리로 하여금 아련한 추억과 마음의 고향을 되찾게 해준다.


4 한국의 茶詩 김상현 동국대교수
초의선사를 비롯하여 유명 다인들의 다시를 엮은 책.
한 잔의 차로써 다선일미(茶禪一味)의 멋과 세계를 감상한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한결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가질 것이다.


5 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최인호 소설가
금세기 우리 문단의 최고의 작가 최인호!
경허의 세 제자 수월·혜월·만공의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최인호 특유의 독특한 문체로 그린 선소설!


6 곰취처럼 살고 싶다 윤후명 소설가
한국소설대학에서 작가 지망생을 지도하고 있는 윤후명 불교산문집.
봄의 들길에서 출발하여 가을 황량한 바닷가까지의 여정을
쓸쓸하지만 아름답게 보여준다.


7 불교문학의 이해 홍기삼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홍기삼! 불교와 문학의 만남을 통하여
감동과 비평의 언어로써 새로운 인간학을 지향한다.


8 사천강단(四川講壇) 민영규 연세대명예교수
어느 노학자의 선불교 탐방! 쇠보다 강한 것은, 무엇인가가
미생전(未生前), 우리를 그렇게 메이 놓은 것이리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감사원, 그린벨트 특감 "결코 훼손돼선 안된다"

국토 5.4% 차지…선거때면 해제공약
주민 '재산권 침해 불만' 해소책 세워야

감사원이 그린벨트 특감에 나섰다.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행정누수로 인해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토지관련 불법·무질서 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 국토의 5.4%인 16억3천만평. 71년 서울의 무질서한 평면확산을 막고 각종 공해로부터 수도권주민을 보호키 위한 방법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시행됐다. 그후 77년까지 70개 시·군 14개 권역으로 확장됐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줄곧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이 저지됐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이 효과적으로 보전될 수 있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다. 이와는 달리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주민불편이 뒤따르다보니 선거 때만 되면 그린벨트 완화가 각 정당·후보들의 주요공약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그린벨트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최근 그린벨트 재검토를 선거공약으로 내놨다. 그린벨트 내의 96만5천여명의 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음직 하다. 정치권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국토관리 정책을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또하나의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을 투기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주민생활과 무관한 무허가 자동차운전교습소, 호화주택, 호화음식점, 쓰레기매립장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고 있다. 일부 부유층과 인·허가관련 공무원의 유착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는 시의적절하다. 공직비리 적발과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돼야 한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 사람과 자연 둘아닌 하나

분당 기원정사 주지 법경스님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그린벨트 지역의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전책이 강구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의 불법훼손과 해당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전 곳곳에서는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몸을 정보(正報)라 하고,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산하대지를 의보(依報)라 하는데,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의정불이(依正不二)이다."〈불설아미타경〉

정상인 돌보는 장애인 침술봉사



◇한국맹인의료연구회-시력을 상실한 뒤 실의를 딛고 일어나 오히려 정상인들을 돌보는 장애인 모임이다. 시각장애인인 강성렬씨(47·서울신반포동) 등 5명은 중계동 둔촌동 광명시 대치동 등 먼곳에서 달려와 매주 목요일 오후1시만 되면 마장동 동사무소 3층으로 나온다. 40여명의 주민들이 이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무료로 침을 놔주고 지압과 안마를 해준다.

공해정치인 추방운동 시민단체들 나섰다

경실련 참여민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월 25일 대선을 앞두고 저질발언과 근거없는 설을 퍼뜨리는 정치인 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해당 정치인 및 정당에 항의전화 및 팩스보내기, PC통신망에 비난의 글 올리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흑색선전으로 대선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저질발언을 평가해 성명서 등의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위성교육방송 시작 사교육비 부담 줄듯

위성교육방송이 8월 25일부터 시작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실시 첫날 일부 학교에서는 위성교육방송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강의내용이 어렵다며 위성교육방송 교재를 가르치는 새로운 과외를 찾아가고 있다. 일반과외를 흡수한다는 애초의 목표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낮춰 학생 부담을 덜고, 대학측의 입시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과외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진열대 온도관리 허술

대형식품매장을 설치한 백화점 수퍼마켓 등이 진열대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고 있어 식중독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서울을 비롯한 10개도시 1백65개 판매업소에 설치된 냉장·냉동진열대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온도관리를 허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공전에는 냉장진열대는 0~4도, 냉동진열대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업소의 냉장진열대의 평균온도는 9.3도, 냉동진열대는 영하 7.2도로 법정온도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대형백화점의 냉동진열대는 0.7%만이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다. 냉장·냉동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여시아나균 등 세균들이 증식해 식품의 부패를 유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한의사협 해외 의술봉사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해외의료봉사단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과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사할린 연변 등지에서 매년 두세차례씩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에도 해외봉사단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연변과 타지키스탄에서 1만2천여명에게 의술을 베풀었다. 이달 12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10일간 무료진료활동을 벌인다.

도박리스트 1백여명 수사

서울지검 외사부는 8월 22일 미국 머라지호텔 한국인고객 담당자인 로라최(42)씨로부터 입수한 도박미수금 장부와 전화번호부 등 2권에 1백여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내인사들의 영문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이 리스트를 근거로 신원확인에 나서는 한편 도박혐의가 명백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검거에 나섰다. '로라최 리스트'에는 재계순위 30위안의 모그룹회장과 전국회의원, 언론사 간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우이웃돕기 21억 쾌척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한 지역에 보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웃을 배려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남주동에 사는 권태성씨(76)가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평생 힘들여 모은 현금 6억원과 부동산 등 21억원을 쾌척했다. 권씨는 자신의 아호를 딴 간송(澗松)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최근 충북도교육청에 재단설립 신청서를 냈다.

재단설립 후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적절히 병행한다는 게 권씨의 구상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인 불우노인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자들에게 연구비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장애복지관 건립 주민반대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가 표류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해 6월 산본동 1156번지 일대 수리산 아래에 35억원을 들여 2천7백여m² 규모의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직업적응훈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산본신도시 1천3백여가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군포기와 시의회에 장소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대에 나섰다.

군포지역 거주 1천6백여명의 장애인들은 장애도 서러운데 주민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웃이 될 수 없는 각박한 세태를 아쉬워하고 있다.

시론

매체환경의 음란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일까. 서울대 학교일까. 서울대는 학생수가 2만여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방송통신대학은 어떨까. 방통대는 학생수가 수만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이곳도 경쟁상대로 턱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는 다름아니라 텔레비전이다. 매일 저녁 거기에 눈과 귀를 모으는 사람만도 수백만명을 헤아린다.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누구일까. 서울대 교수들일까. 혹은 '스승의 날' 표창을 받은 선생님들일까. 혹은 일류학원의 강사들일까. 모두 거리가 멀다. 가장 영향력있는 교사는 다름아니라 TV 스타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태는 그들 TV스타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정 달 영
〈바른언론시민모임 사무총장〉

문제는 그러한 텔레비전과 TV스타들이 '가르침받고 본받을'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늘날엔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TV화면에서 인간은 안보이고 물질만 보이게 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거니와 최근 들어서는 보통사람의 진솔한 모습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 제대로 검증도 안된 연예인들이 우 몰려나와 놀이판을 벌이는 한심스런 풍토가 되고 있다. 물론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성과 폭력의 상품화이다.

TV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지도가 필요치 않고, 또한 절대로 수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종래의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던 지식, 즉 성인의 삶과 관련된 '비밀들'이 더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령 말로 할 때는 어린이가 듣지못하도록 속삭이거나 어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수 있지만, TV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TV에서 상품화된 성과 폭력이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거침없이 다가가게 된다.

비단 TV만이 아니다. 비디오는 음란·폭력성의 상품화에 선봉장이 된지 이미 오래지만 TV의 영향을 받아, 또 TV와 견주느라 신문 잡지등 인쇄매체도 그러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편의점의 가판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야릇한 잡지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면서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당한 스포츠 신문들…. 이것들의 음란·폭력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이젠 일간지들마저 음란·폭력성을 주요 메뉴로 삼아가고 있는 추세니 더 말할나위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매체환경은 거의 황폐화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해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생명파괴 현상을 가져오고,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 종자를 낳게 되는 것을 보아왔다. 대중매체라는 사회환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체환경이 오염되면 그것을 숨쉬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좀먹을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진대 여고생이 아르바이트로 유흥가 접대부 생활을 하고, 여중생이 음란 비디오를 찍고, 학교폭력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또한 주목할 것은 그것들이 사회문제화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고 어른들이 흥분하는데 대해 정작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또래 집단까지 태연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여중생은 이른바 '빨간 마후라' 사건에 대해 "이해못할 일도 아니다. 그 애들이 한 일을 '재미있겠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이 이미 상당히 황폐되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아닐 수 없다.

과보가 나타나기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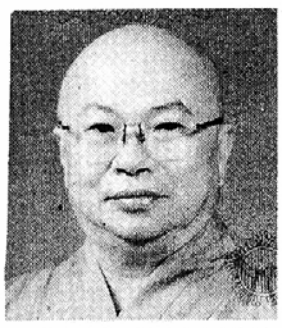
법구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도 그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악의 과보가 눈앞에 다달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괴로워한다"는 귀절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하며 청소년 유해매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스포츠신문들을 기소한 검찰도 이번만은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부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악의 과보가 눈앞에 다다른 후 괴로워하지 않도록 음란·폭력적 매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가격 : 정가 50만원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 김 창 수)

如來健康院 合掌
電話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으로 뽑아내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장 김윤선)은 4일 「참기름과 부산물인 깻묵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큰 천연물질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추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노화방지제와 암예방 의약품, 피부노화억제용 화장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지 개발된 천연물질가운데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로 평가돼온 「알파 토코페롤」보다도 산화억제능력이 15-20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류수로 박사는 이 세사미놀성분으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있는 음료와 알약 등의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으며, 내년중에는 특허공매를 통한 산업화가 이뤄져 오는 98년말쯤 관련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69 1997년 2월 3일 식품뉴스

감식초음료 급성장세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감식초 시장은 마이너이 즉시 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장규모가 약2백억원대로 성장했으며 이 마이너만 그중 절반이 넘는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0

남전의 고양이

*동서 양당의 학인들이 고양이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남전이 이에 고양이를 잡아들고 말했다. "대중이여, 말을 하면 살고, 말을 못 하면 죽는다." 대중들은 말이 없었다. 남전은 고양이를 갈라 버렸다. 저녁, 조주가 밖에서 돌아왔다. 남전이 이 일을 조주에게 알렸다. 조주는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더니 나가버렸다. 남전이 말했다. "네가 있었더라면 고양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나 혜개가 말한다. "말해 보라.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만일 여기서 한 마디 내릴 수 있다면, 남전의 영이 헛되지 않음을 알리라. 그러지 못한다면, 험난!"

*송하여 가로되,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영을 거꾸로 시행했을 것. 칼자루를 뺏어쥐어 남전이 목숨을 구걸했으리라."

南泉斬猫:

南泉和尙, 因東西兩堂爭猫兒, 泉乃提起云, 大衆道得卽救, 道不得卽斬也. 衆無對. 泉遂斬之. 晩, 趙州外歸. 泉擧似州. 州乃脫履. 安頭上而出. 泉云, 子若在, 卽救得猫兒. 無門曰, 且道, 趙州頂草鞋, 意作??生. 若向者裏下得一轉語, 便見南泉令不虛行, 其或未然, 險. 頌曰, 趙州若在, 倒行此令, 奪却刀子, 南泉乞命.



그림 · 이준석

남전은 한 칼에 고양이를 참해 버린다. 섬뜩한 피냄새가 확 끼쳐오는 듯하다. 공안 가운데 가장 과격한 것을 꼽으라면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는 구지, 그리고 법당의 목불을 태우는 단하, 그리고 여기 고양이의 목을 가르는 남전의 칼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남전이 잔인(?)하다. 남전은 어려서 계율을 익히고 능가와 화엄과 중론을 차근차근 익힌 사람이다. 살생을 최대의 금기로 알고 있는 불문에서 죄없는 고양이의 목을 따버린 파천황. 고양이의 목은 동서 양당의 스님네들의 목숨을 따버린 것이고 공안을 읽는 우리의 목숨을 따버린 것이다. 진리를 모르면 살아서도 죽은 목숨이라는 뜻이 거기에는 담겨 있다. 나는 지금 내 목 언저리를 쓸어보고 있다.

저녁이 되어 밖에 나갔던 조주가 돌아온다. 남전은 낮의 비극을 조주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조주를 바라본다. "너라면 고양이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라는 눈으로. 조주는 말없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가버린다. 남전은 조주가 진실을 알고 있음을 알았다. "네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죽지 않았을 것을."

화두의 눈은 짐작대로 말없이 짚신을 이고 방을 나간 조주의 행동에 있다. 아니나 다를까. 혜개 또한 평의 서두에서 그 의미를

"진리 모르고 살면 죽은 목숨"

조주가 짚신 머리에 인 뜻 어디에 있나

압축과 생략이 두드러지고 장면 전환이 빠른 글이다. 그래서 짐짓 간결체로 군살없이 번역해 보았다.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렇다. 남전의 문하에는 사람이 많았다. 동서 양당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고양이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본문은 "고양이를 다투고 있었다(爭猫兒)"라고만 썼다. 속세의 사람들처럼 고양이의 소유권따문에 싸운 것같지는 않다. 고양이에게 과연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오갔을 것이다. 짐승의 불성을 논하는 것은 당시의 한 유행이었던 듯하다. 초기의 교설이 특정한 종성(種性)에, 가령 일천제나 불법을 모독하고 업수이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불성을 제한하다가 대승의 발전과 함께 삼라만상 일체만물에 이를 허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조주의 일대공안,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가 태어난 것이다.

고양이의 불성을 둘러싼 논쟁을 본 스승 남전이 고양이를 들고 외친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고양이를 살려 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양이를 죽이겠다." 다들 묵묵부답이었다. 화두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남전의 문하에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릇은 조주 하나뿐이었다. 마조의 법맥은 그래서 남전이 아닌 동문 황벽을 통해 번성하게 된다. 물론 나중의 일이다.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역시 진실은 언설 속에 있지 않다. 의식과 행동의 가장 건전한 양식, 전문용어를 쓰자면 불성의 현현, 법계의 소식은 식(識)과 경(境)의 반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곳은 일상적 감각이나 습관적 의식 너머의 낯선 세계이다. 당연한 결과로 논리나 판단이 따라잡을 수 없다. 짚신은 원래 발에 신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주는 그 무시이래의 습관적 판단을 뒤집어 놓는다. 짚신은 머리에 신는(?) 것이다! 그 행위가 상징하는 곳이 어디인지 가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설명이 불가능하기에 조주는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그것이 남전이 기대한 〈위대한 한 마디〉였다. 불성에 대한 분분한 논란은 무익하다. 아니 차라리 유해하다. 불성의 실체는 자신의 내부를 의식적 분열 없이 들여다 보아야 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의 자리이다.

고양이의 목을 친 남전의 영(令)은 논란과 판단의 상대적 의식을 극단적 방식으로 경계한 것이다. 그렇지만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보다 온건하고 점잖은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혹 조주의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자상한 성향은 스승 남전의 과격함에 대한 반발은 아닐까. 과연 혜개의 송대로 조주가 있었더라면 남전의 칼을 빼앗아 거꾸로 남전을 겨누지 않았을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30〉

칠각지



◇김양수 作 '운주사 所見'

선악구별-내면몰입-마음비우기 등 열반·안락 얻기위한 7가지 수행법

인간은 괴로운 존재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만이 괴로움이 아니고 만나고 헤어지고 얻고 잃고 번민하는 모든 것 자체가 괴로움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괴로움을 해탈과 열반을 얻어야만 벗어나게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은 인생 자신이 지니고 있고 무명과 번뇌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을 여의고 해탈 열반의 안온한 경지에 이르는 여러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셨는데 이것을 '도'라고 한다. '고'를 소멸하는 방법, 해탈에 이르는 방법으로써의 도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므로 여러 가지의 길이 있겠으나 부처님께서는 서른 일곱 가지의 방법을 일곱 묶음으로 묶어서 가르치셨다. 이것을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혹은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이라고 한다. 이른바 고(苦, 고통), 집(執, 고통의 원인인 번뇌), 멸(滅, 고가 소멸된 해탈의 경지), 도(道, 고통을 소멸하는 길들), 사성제중의 '도' 속에 서른 일곱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념처(四念處, 네가지에 대한 주의집중) 사정근(四正勤, 네가지 끊고 발해야 될 마음) 사여의족(四如意足, 네가지 자유자재 하는 마음) 오근(五根, 다섯가지 뿌리내려야 할 마음) 오력(五力, 다섯가지 갖추어야 할 힘) 칠각지(七覺支, 일곱가지 깨달음에 나아가는 법) 팔정도(八正道, 여덟가지 바른길)를 모두 합치면 삼십칠이 되는데 이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팔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각 지분들마다 무슨 큰 특징이 저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 내용들이 중첩되어 팔정도 속에 사념처가 있고 칠각지 속에 사념처가 있고 사여의족 속에 칠각지가 있다. 그러니까 삼십칠도품의 일곱 묶음 중의 하나의 묶음만 제대로 닦아도 전체를 다 닦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의 주제인 칠각지를 알아보자.

칠각지는 칠각분(七覺分) 혹은 칠각의(七覺意) 칠보리분(七菩提分)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의 목적인 해탈 열반에 다다르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일곱가지 방법들을 가리킨다. 첫째 염각분(念覺分)으로 몸의 현상과 느낌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과 법의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욕심을 일으킬 적에 자신이 화를 내고 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채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택법각지(擇法覺支)로 마음에 일고 꺼지는 모든 살림살이들을 잘 살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일으킬 것은 일으키는 분별능력을 말한다. 염각지에 의해서 성냄과 욕심을 자신의 마음에서 보았다면 그것은 즉시에 버릴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를 재빨리 ,분별하고 결정하되 악법을 버리고 선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번째는 정진각지(精進覺支)로 번뇌가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게으르는 것이 아닌 힘써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은 하다말다 해서는 안되고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한다. 네번째는 사각지(捨覺支)로 마음의 평등을 가리킨다. 좋고 싫음, 사랑과 미움, 너와 나, 옳고 그름 등의 상대와 시비심이 모두 자기 집착에서 나온 줄을 바로 보고 버려서 그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는 정각지(定覺支)로 마음이 바깥 대상에 끌려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움직임이 없는 정(定)에 들어 일체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섯째는 희각지(喜覺支)로 마음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 마음이 내면을 향해 깊이 몰입되면 모든 번뇌가 점점 사라져 큰 기쁨을 느끼는데 이 기쁨은 세간의 어떤 즐거움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일곱 번째는 경안각지(輕安覺支)이다. 여기서는 일체의 들뜨고 혼란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평온하고 안락한 마음만이 지속된다. 이곳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뇌가 없다. 혹 있다손 치더라도 수행하는 힘으로써 엷어지고 미세해진다. 칠각지는 수행의 과정이면서 수행의 완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칠각지를 닦는 것은 인간이 고를 여의고 최상의 낙을 얻기 위해서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마음 관찰과 집중을 배우는 것이 칠각지 수행의 대의가 아닌가 싶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23

연기와 무한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23



수학 "무한은 그가 포함한 일부분과 대등"

불교 "찰나 속 무한세계 연기고리로 파악"

지난 호에서는 수학적 귀납법과 연기를 묶어서 생각한 현수법장대사(賢首法藏大師)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자연수 전체는 무한이며 이 무한이 하나의 같은 원리인 연기의 고리에 지배된다는 것이다. 수학에서는 귀납법이 원리이며 법장대사는 연기라고 한다. 이 원리에 주목할 때 무한의 대상이 하나의 통합체가 됨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화엄철학은 무한과 연기를 중심에 둔 철학이다. 평범한 속인들도 때때로 실제로 무한을 목격함으로써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 필자는 어떤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중 정면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무한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았다. 앞의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뒷면에 있는 거울에 반사되고 그것이 또 이쪽 거울에 비치고 …… 계속 무한의 열을 형성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법장대사는 이 수법으로 연기와 무한의 관계를 설명한 일이 있었다.

법장대사는 거울 열 개를 원주 상에 세웠다. 팔방에다 하나씩 세우고 그 위 아래에도 하나씩 놓아 거울의 면이 서로 서로 대면하게 만들어 거울들의 간격을 각각 똑같이 하여 그 가운데에다 불상을 넣고 촛불로 그것을 비추었다. 그것들이 서로 서로 비추고 비추이는 모양을 했다. 이것은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因緣)와 한 점이 무한에 대응함을 보인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일대 일 대응이 되고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법칙이다.

현대수학에서는 '무한은 그가 포함하고 있는 일부분과 대등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그것은 수학의 무한을 확립한 칸토르와 데킨트가 내린 것이다. 이 사실을 불교에서는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시간적 · 공간적으로 인간이 유한을 초월해서 무한 체제와 합일할 것을 바란다.

"제불(諸佛)을 공양(供養)함에 있어서 일식(一食)의 사이에 모든 무량(無量), 무수억(無數億)의 제불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각(正覺)을 얻지 못한다."〈무량수경〉

이것은 시간의 장단이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思惟)하는 한 아무리 짧은 시간에도 무한을 이룰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하나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뒷면에 있는 거울에 비추어져 있음을 의식할 때 무한이 발생한다. 아무리 짧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한의 시간도 무한의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것은 발상(發想)에 있어서는 현대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분석(無限分析)의 개념과 같다. '중생심중 일찰나중 유구백생멸(衆生心中 一刹那中 有九百生滅)'〈俱舍論〉 즉 '사람의 마음은 찰라(刹那)에도 무한(九百)의 생각을 할 수 있다.'

법장대사의 '거울'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생각하자. 사방 팔방이 거울에 비추어지는 불상은 무한개이다. 이들은 서로 비추고 비춰져 있다. 만일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사라진다면 모두가 없어진다. 일찰라(一刹那) 속의 무한의 세계가 형성되고 없어지기도 하는 연기의 세계이다. 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다. 무량, 무수억의 여러 부처에 공양하는 일은 이 연기의 고리를 의식하는 일이다. 무한이 낱낱이의 무한의 모임으로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연기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이 연기의 이치를 이해할 때 이들 존재가 하나로 귀결된다.

삼라만상이 무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들에게 관통하는 이치는 '연기'라는 매우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다. 수학에서는 이들 무한을 무한으로 보고 해석하는데 불교 철학은 수학적인 무한 이론을 발판으로 한 계단 비약한다. 연기(緣起)로써 파악하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부전스님 초빙

학원에 다니시는 (공부하시는) 오전반, 오후반 부전스님을 각각 초빙합니다.

※조계종 스님

도봉구 쌍문동

종무소

(02) 993-3744

무진장 스님과 함께하는 — (가을강좌)

불교교리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공부할 제 5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웅전갤러리3층)
3.개강일시	1997년 9월 7일(일)오후6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무진장스님,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문의 : 사무국 TEL: 732-1206~8
FAX: 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3층)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 인 사 말 씀 ◆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효성석재공예사 김 인 호 합장

효성석재는 부처님 조성이나 석탑, 석등등을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성석재는 규모를 자랑하지 않고 숙련된 기예와 불심으로 조성합니다.



◆ 주 요 불 사 실 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효성석재공예사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대표 (0357)542-1527~8
야간 (0351)874-468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9월 1일 ~ 10월 6일
■ 개강일시 : 1997년 10월 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포교과정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지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 733-3900





바닷가재
탕수육…
재료는 채소
과일 · 김등
모양도 맛도
'진짜고기'

"소림사 음식 맛보세요"

청담동 채식전문식당 '베지월드'

보통 채식 하면 갖가지 나물무침의 소박한 밥상을 연상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베지월드(02-516-9776)는 채식 전문식당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탕수육, 훈제거위구이, 궁보 닭고기, 참치스테이크, 바닷가재 등의 육류 · 생선요리로 가득한 차림표를 선보이고 있어 손님들을 의아하게 한다.

음식이 나온 뒤에는 채식 전문식당이라는 문구에 속은 것 같아 기가 막힐 정도다. 탕수육은 영락없는 탕수육 맛이요, 참치스테이크는 생선 껍질까지 붙어있어 영락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맛과 씹는 느낌, 모양, 영양까지도 감쪽같은 야채로 만든 '가짜 고기'다.

베지월드 이라리나 사장은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손님들에게 "이곳의 요리는 모두 채소를 이용한 것"이라며 "탕수육은 버섯, 햄은 콩, 참치껍질은 김을 이용해 만들고, 색깔은 과일과 채소 즙을 이용해 냈다"고 설명하기 바쁘다.

이 사장은 이 '가짜 고기'의 뿌리는 1백년전 중국 소림사가 풍후로 명성을 떨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무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불만 먹고 어떻게 힘을 쓰냐"며 불만을 토로하자 스님들이 각종 버섯과 채소, 그리고 한약본초를 이용해 맛과 모양은 물론 씹는 느낌까지 똑같은 '가짜 고기'를 만들어 이들을 달랜데서 비롯됐다는 것.

이 비법은 대만으로 건너가 사찰음식으로 자리잡았고, 맛과 멋을 내 연회 또는 서민음식으로 개발됐다. 지금은 종교와 무관하게 대중화한 것은 물론 미국 프랑스 영국 태국 등 세계 18개국에 보급돼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로열한의과대학 이사장을 역임한 베지월드의 김대영 대표이사는 "'채소고기'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용 · 건강식으로 훌륭해 현대인들에게 안성마춤이다"고 강조하며 '채소고기'를 이용한 사찰음식이 식생활 개선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베지월드가 1호점이다. 채식을 통해 사찰음식을 보급한다는 김이사와 이사장의 원력으로 문을 연 베지월드는 그래서인지 초입부터 불교적 냄새를 물씬 풍긴다. 궁후복장을 한 종업원들이 반기고, 향내와 명상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한 가득 불교용품으로 장식한 진열장도 눈길을 끈다.

요리 하나하나에 깃든 얘기도 재미있다. 길을 가던 스님이 탐 넘어 집에서 어찌나 맛있게 냄새가 나던지 체면 불구하고 담을 훌쩍 뛰어 넘었다해서 붙여진 '불도장요리', 그 맑고 투명하기가 얼음, 수정같다고 해서 붙여진 '빙정원', 모양이 토끼와 봉숭아를 닮았다해서 '토끼빵' '봉숭이빵' 등.

베지월드에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딤섬(중국식 만두)에서부터 풀코스메뉴에 이르기까지 2백여가지 채식요리가 있다. 케익, 겨자 땅콩, 강정 등 간식거리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형형색색의 갖가지 도시락은 일품이다. 5천원~1만원이면 점심 한끼를 근사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베지월드는 앞으로 각 가정에서 '채소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료와 조리된 음식을 유통판매 할 계획이다. 전국 명찰일대를 중심으로 체인화하고, 사찰음식을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요리책도 펴낼 방침이다. 다만 현재 대만에서 반조리 상태로 들여오는 채소를 국산화하는 것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 메뉴를 개발해 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도필선 기자

인터뷰 '베지월드' 이 라리나 사장

"채식생활화도 수행이죠"



"포교당을 개원한다는 마음으로 베지월드를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사찰음식이라는 식문화를 통해 소개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불교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함이죠."

중국 사찰식 건강채식 전문식당 '베지월드' 이 라리나 사장(36). 이사장의 이같은 원력은 불자들만을 위한 음식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신을 받들어 많은 이들의 식성을 채식생활화 시키는데 앞장 서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로 장식한 광고전단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자주 논란이 되는 스님들의 공양계율문제도 '채식고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겠다는 바탕을 갖고 있다.

그의 유별난 불교사랑은 미국 이민생활 중 효선스님을 만나면서 돋보이기 시작했다. 13살때 '옥구슬같이 빛나서 이웃을 맑고 밝게 비추라'는 〈관음경〉의 '라리나'를 법명으로 지어주신 스님을 다시 만나면서 비로소 마음 속에만 묻어두었던 불교활동에 나선 것이다.

법명을 본명으로 바꾼 이 사장은 스님의 잔 심부름부터 복잡한 서류처리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83년에는 정회사를 세우는데 일조했다. 또 LA에 종합무역 실내 장식회사 호보초사(Hobocho Co.)를 설립하고 중국 심양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 미국에 한국불교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중예술하는 스님들
"무대가 좁다"







①지범스님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
②도신스님
③연극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에서 주인공중 한명인 만수로 분한 정허스님.
④환월스님
⑤심진스님
⑥지연스님
⑦법현스님

갈곳도 없이 헤매는 사람아
어물곳 없이 떠도는 사람아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무엇인가
구름처럼 밀려왔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어라
〈도신스님 노래 '우리 인생은 바람이어라'中〉

구성진 가락, 삶의 무상을 여실히 나타내는 노랫말. 삭발염의의 스님이 직접 불러주는 노래가 가슴에 뭉쿨 와 닿는다.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듣는 장시간의 법문 못지않은 감동을 줄 때가 있다. 이렇게 불교적 정서를 대중가요로 만들어 포교하는 스님가수들이 심진 도신 지범 지연스님 들이다.

그윽하면서도 은은한 선율의 첼로. 첼로로 연주되는 찬불가를 듣는 맛과 멋은 파아노나 노래와는 또다른 감흥을 준다. 첼로를 들고 포교현장은 어디든 나타나는 법현스님(대보사).

최근 KBS-TV 드라마 '용의 눈물'은 30%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조선 개국 초기 장면에서 무학대사가 자주 나왔다. 모 탤런트가 분장한 무학대사는 그 진지한 법문에 비해 머리는 늘 얼만큼 자리있고 '선사' 이미지를 느낄 수 없게 비대한 몸이 다소 어색했다. 마침 비슷한 때에 실제스님이 직접 스님역을 맡았던 '전설의 고향-검룡소에'와 비교됐다. 여기서는 노스님역으로 정허스님(범어사 금강암)이 출연했는데 스님이 스님역을 맡았으니 당연히 자연스러웠다.

가요, 연주, 연기 등 대중을 위한 예술활동으로 중생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고 포교방편으로 삼고 있는 스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불음가수의 선두주자격인 심진스님과 도신스님. 심진스님(한등사)은 '그대를 위한 시' '백팔번뇌' 등으로, 도신스님(구룡사)은 '나그네' '무상' 등의 구성진 불음가요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국악을 반주로 해 더욱 불교적 정서가 호소력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도신스님은 '통곡' '용서, 그리고 구도'를 타이틀로 한 2집앨범에서는 신촌블루스가 반주를 맡는 등, 보다 대중화를 위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특유의 저음과 구성진 목소리의 지범스님(제주 북성사)은 거리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 초파일이나 어버이날에는 TV를 통해 특집공연까지 갖고 있는 지범스님은 "모놀로그식의 일방적 법문보다 3분동안 하는 소리법문이 훨씬 전파력이 클 때도 있다"고. 반야심경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등 경전과 선사들의 선시를 쉽게 풀어 노래를 만드는 스님은 6집을 준비중이다.

7월7일 부산 KBS홀에는 무려 4500명이 모인 야단법석이 벌어졌다. 스타강사가 초청된 것일까. 이날의 주인공은 지연스님(밀양 선우사). 스님은 '지혜롭게 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물흐르는 듯한 법문과 중간중간 '성불하게 하소서' 등 노래로써 좌중을 압도했다.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지도로 부산 경남 일대에 널리 알려진 지연스님은 '지연스님의 찬불가요' 등 2개의 노래테이프를 나누어주며 음성포교에 나서고 있다.

이들 가수스님(?)들은 한결같이 "어렵고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보다 가깝게 하는 방편으로써 노래포교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일반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스님이 노래한다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불교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7월26일 무더위의 정점에서 대보사에서는 불자가족모임 음악법회가 열렸다. 주최자는 '첼로스님'으로 알려진 법현스님. 스님은 불교행사 군법당 교도소 등 스님의 선율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간다. 무아에 빠진듯 심혈을 기울여 첼로를 연주하는 스님의 모습에 관객들은 일반 연주자에게보다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환월 연습 안해도 NG없이 연기 척척
정허 88년 극단 '하늘개인날' 창단
지범 소리법문 거리공연…6집앨범 준비
도신 2집 신촌블루스 반주 '대중화노크'
심진 '그대를 위한 시' 등 국악가요 보급
법현 첼로들고 교도소등 어디든 포교
지연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관객압도'

중앙대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하다 문예창작과로 전과했으나 연기에의 꿈을 버리지 못해 입산후 수행하다 지난 88년 극단 '하늘 개인날'을 창단한 정허스님. 스님은 '원효대사' '만다라'등 불교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주인공 원효대사와 지산스님역을 맡기도 했다. 지난 봄에는 정통연극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를 공연해 호평을 얻었다. 정허스님은 40여편의 연극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삼국기'에서 자장율사로, '김구'에서 스님역을 맡는 등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92년 부산연극제 대상, 93년 전국연극제 최우수남자연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다.

신촌 봉원사는 불교전통의식 '영산재'로도 유명하지만 그 사하촌에는 예로부터 연극쟁이 영화쟁이 놀이패들이 모여사는 문화촌이다. 또 봉원사는 초파일에 스님들끼리 극본을 쓰고 연기를 했을 정도로 연극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KBS 1-TV의 일일연속극 '당신이 그리워질때'나 SBS-TV 대하드라마 '임꺽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천도하는 스님으로 나온 환월스님(봉원사 부주지)을 기억할 것이다. MBC-TV '제5공화국'에도 나온 환월스님은 연습이 따로 필요없고 NG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허스님과 환월스님은 "TV의 엄청난 위력을 생각한다면 화면에 나오는 스님의 모습이야말로 불교를 상징하기에 제대로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시현하는 일이라면 크고 작은 역을 떠나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의욕을 보인다.

타고난 '끼'를 바탕으로 노래와 연기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이같은 스님들의 문화활동은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라는 기치아래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도 보수적인 많은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스님들의 이러한 대중예술활동을 꺼려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비디오 · 오디오가 보편화되고 있는 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 재가는 물론 승가자체의 의식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예술활동이 무조건 극찬받고 완성도 높은 것으로 왜곡되는 것은 오히려 불교에 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깊은 수행으로 밑받침안된 대중예술활동은 직업화, 상업화로 흐를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조심스러운 우려이다.

"본질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기능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기능으로는 중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한 중진스님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경숙 기자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나한품(羅漢品) ②

如空中鳥 여공중조
遠逝無碍 원서무애
世間習盡 세간습진
不復仰食 불부앙식

공중에 나는새가
멀고 가까움에 걸림 없듯이
세간의 온갖 습이 다 떨어져
다시는 세간행을 우러르지 않는다

虛心無患 허심무환
已到脫處 이도탈처
譬如飛鳥 비여비조
暫下輒逝 잠하첩서

마음 비워 근심없으니
이미 저 언덕에 이르렀도다
마치 저 나르는 새가
잠시 내렸다가 이내 가는것 처럼

制根從止 제근종지
如馬調御 여마조어
捨憍慢習 사교만습
爲天所敬 위천소경

육근을 제어해 헐떡임 쉬니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삼계의 장애에서 벗어나니
바람도 욕심도 끊어져
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일세

在聚若野 재취약야
平地高岸 평지고안
應眞所過 응진소과
莫不蒙祐 막불몽우

마을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평지에 있거나 높은 산에 있거나
아라한이 지나는 곳에
누군들 은혜 입지 않으랴

彼樂空閑 피락공한
衆人不能 중인불능
快哉無望 쾌재무망
無所欲求 무소욕구

아라한은 고요한 곳 좋아하나니
보통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상쾌하다. 바람 없음이여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음이로다

술천품(述千品) ①

"일천글귀 외워도 뜻 제대로 모르면 단 한마디 법구들어 번뇌쉼만 못하다"

雖誦千言 수송천언
句義不正 구의부정
不如一要 불여일요
聞可滅意 문가멸의

마치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
교만한 습 다 버렸네
하늘이 존경하는 이로세

비록 일천 글귀를 외우더라도
그 글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말을 들어서
번뇌를 쉼만 같지 못하리라

不怒如地 불로여지
不動如山 부동여산
眞人無垢 진인무구
生死世絶 생사세절

雖誦千言 수송천언
不義何益 불의하익
不如一義 불여일의
聞行可度 문행가도

저 대지 같아 성내지 않고
저 산과 같아 움직이지 않나니
참 사람은 티없이 맑아
나고 죽는 세간법 끊어졌도다

비록 일천 글귀를 외우더라도
그 글뜻을 모르면 무에 이익이랴
단 하나의 이치를 들어서
마음을 쉬게됨만 같지 못하리라

心已休息 심이휴식
言行亦止 언행역지
從正解脫 종정해탈
寂然滅滅 적연귀멸

雖多誦經 수다송경
不解何益 불해하익
解一法句 해일법구
行可得道 행가득도

마음은 이미 고요히 쉬고
언행 또한 물들지 않았으니
바른 길따라 해탈 하여서
본바탕 그대로 적멸에 들었네

아무리 많은 경귀를 외우더라도
제대로 뜻을 모르면 무에 이익이랴
단 하나의 법구라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도에 이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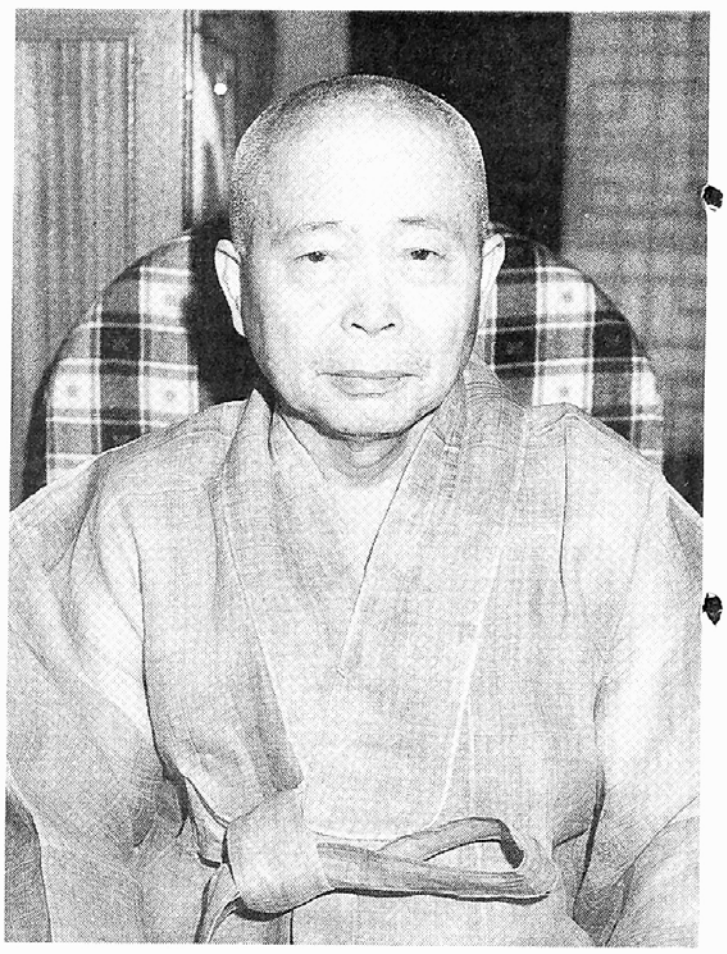
棄欲無著 기욕무착
缺三界障 결삼계장
望意已絶 망의이절
是謂上人 시위상인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를 낮추다 보면

송월스님 〈해인사 한주〉



"한국화를 여백의 예술이라 합니다 여백은 빈공간아닌 조화의 아름다움 드러내지 않고 제역할 다합니다"

어릴적부터 붓글씨에 소질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입산하고 나서 붓을 놓았다가 1953년 무렵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내면에서 끝없이 글씨를 쓰고 난(蘭)을 치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지요. 전통예술을 이어야겠다는 바람도 그때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하얀 종이에 새로운 생명력을 일궈낸다는것은 생각만으로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적적묵묵(寂寂默默)한 산사에서 븟따라 심상(心象)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풀벌레 소리와 바람소리가 방안을 맴돌다 돌아나가곤 했습니다. 평소 좌선을 하거나 생활을 하다 여가로 붓을 들다보면 심기가 가라앉아 마음을 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50년대까지만 해도 관련 서적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사군자를 치고 싶어도 교재가 없다보니 발전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다 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일본에서 관련서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번역해 가면서 공부를 했었지요. 그러나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서예는 지식으로만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지식으로 익힌 서도는 구두선(口頭禪)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 선생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강(海剛) 김규진선생의 아드님이신 청강(晴江) 김영기선생을 찾아 갔습니다. 해강선생은 해인총림의 일주문 현판글씨와 주련글씨를 다수 쓰신 당대의 서예가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청강선생을 찾게 된겁니다. 청강선생은 해강선생의 필법을 전수받았을뿐만 아니라 중국 북경대를 나온 분입니다. 또한 대한미술원을 설립하여 한국화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처음으로 주창한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화를 19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서화(書畵)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서양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애매모호하게 동양화란 용어가 쓰이게 된겁니다. 우리그림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는 문화식민 정책의 일환이었지요.

매주 한차례 김영기선생 댁을 방문하여 1시간정도 배웠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은 먹을 가는데 소요되었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셈이지요. 6개월가량 다니면서 기초를 다질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법이지요. 기초를 정립한 연후에는 스스로 문리를 터득해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해야합니다. 나는 화두참선을 하는 분들에게 서예공부를 권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문사강원에서는 정규교과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서는 강의실에 들어갈때와 나올 때 한글자씩 의무적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매란국죽(梅蘭菊竹) 사군자를 즐겨 칩니다. 그중에서도 죽(竹)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통 처음에 난을 배우고 다음에 죽을 배우게 됩니다. 죽(竹)은 사시(四時)에 푸른 탈속의(脫俗)의 취향으로 인해 사군자중의 군자로 불려왔습니다. 붓으로 대나무를 치다보면 흔들리던 마음이 가라앉게 됨을 느낍니다. 겉은 곧고 속은 텅비어 있어 불퇴전의 용기와 집착없는 심성을 가진 수행자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사군자를 수행의 일환으로서 그리면 선화(禪畵)가 됩니다. 참선과 수행이 둘이 아닌셈입니다. 서예가라면 누구나 완벽한 작품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아 있게 마련이지요. 완벽한 작품 그자체가 하나의 화두일수도 있겠습니다.

서예는 자신의 마음상태를 점검할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화두가 성성해질수록, 삶의 너비와 깊이가 더해갈수록 작품도 거기에 응하여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작품에는 수행의 정도와 심리, 인격의 수준이 묻어나 있습니다. 기운생동(氣運生動)하는 작품은 기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작가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요. 형식상으로도 서예는 정신과 풍채를 우선시하고 형태와 바탕을 다음으로 칩니다. 옛선비들은 서예를 단순히 그린다는 목적외에 인격도야를 위한 수양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지필묵을 늘 가까이 두고 틈나는대로 붓을 들었던것입니다. 서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고고하고 격조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했지요.

한국화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작가의 지향하는바 이상세계가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은 무(無)자 화두를 타파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기전과 넘어선후의 글씨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글의 위세가 크게 다르지요. 추사의 글이나 그림에서 생동하는 기상을 당할자는 전무후무합니다. 일반적으로 서화에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자를 일품(逸品)이라고 합니다. 추사선생은 그보다 더 높은 도품(道品)이라해야 옳

약력
- 1925년 경남 합천生
- 45년 해인사 혼해스님 은사로 경성스님을 사미계사로 득도
- 47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6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 명봉사 김용사등 주지역임
- 불교전국미술전에서 다수 특선 및 입선. 사군자 서예개인전(9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書竹작품 2점 소장. 작품으로 해인사 청화당·우화당·진영각·경주 기림사 범종각·대구 선본사 극락전 현액등 다수.

"무념으로 백지에 심상 옮기면 마음은 어느새 평정 되찾아요 참선도 서예하듯 하세요"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1집 500,000 독자의 성원에 힘입어 2집을 발간했습니다. 탄허선사의 법문은 언제나 동양사상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값 7,000원

삶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선사의 법어집을 보십시오.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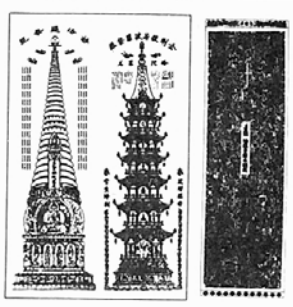
탄허불교문화재단 도서출판 교림
종로구 경운동 64-4 건국빌딩 본관 202호
Tel 733-3334, 733-3359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깨우쳐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백색금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로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영가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친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들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큰스님 수행한담

아상이 벗겨 집니다”

견문이 좁은 사람일수록 자기주장 강하고 융통성 없어요 지극한 하심으로 수련하다 보면 탐진치는 조금씩 소멸됩니다



◇사진 오른쪽부터 해인사방장 법전스님 일타스님 봉주스님 고봉스님 송월스님.

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업연(業緣)이란 게 있습니다. 출가를 하든 속가에 머물든 말입니다. 제가 붓을 든것도 결국 나의 업연이라 해야 겠지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각종비문과 사찰 당우의 현판글씨를 많이 썼습니다. 제주도 고관사의 환성지안대종사 순교비문과 해인사범종각 현판글씨는 그중 하나입니다. 지안스님은 청허 휴정스님(서산대사)을 이어 월담 설제스님으로 내려오는 정통불맥을 이은 분입니다.

휴정스님은 붓한자루로 가슴속에 있는 일만부처를 그려내어도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상(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단하스님이 한 스님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목불(木佛)을 부셔서 땔감으로 사용했듯 아상은 철저히 부셔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고향은 해인사에서 그리 멀지않은 합천군내에 있습니다. 어릴 때 문득문득 '도인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도인이 된다는게 무척 근사하게 여겨졌지요. 도인이 되면 생사가 없어지고 신통자재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면 그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해방이 되던해로 기억됩니다. 한문공부를 많이 해서 주변의 흠모를 받던 한 벗이 해인사로 공부하러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도는 불도가 제일이라고 해요. 당시 해인사는 지금과 달리 4월초파일이나 백중때나 사람들이 몰려올까 평소에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더듬어 해인사에 당도하니 무슨일로 왔느냐고 묻습디다. 불도를 공부하러 왔으니 주지스님을 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가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퇴설당으로 가게 됐지요. 50~60대로 보이는 말끔하면서도 비범해 보이는 한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이 어디서 뭣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어디서 뭣하러 왔느냐고 다시 묻더군요. 머쓱한 기분이 들었지만 앞서 말한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거기서 오기전에는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부모에게서 왔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그이전에는 어디서 왔느냐고 또 물어요. 그질문에는 그만 꽉 막혀버렸습니다. 막막했어요. 하는수 없이 "모르겠습니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먼저 그것을 안 연후에 오라며 두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몇날 며칠을 궁리해봐도 알 도리가 없어 결국 다시 입산했습니다.

은사이신 혼해스님은 32살에 강사를 하실정도로 걸출한 분이셨습니다. 통도사의 대강백 오해련스님도 혼해스님한테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배웠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혼해스님이 견성법에는 화두참선이 제일이라고 해 선방에 들었습니다. 아는게 힘인데 껍데기만 비구여서야 되겠나 싶어 고통을 참아가며 정진했습니다. 직지사 도리사등에서도 공부했지요.

그런데 빨리 깨쳐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욕심이 앞서다 보니 갑갑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기증세에는 백약이 소용없습니다. 한동안 꽤 고생을 했습니다. 좌선을 잘하려면 몸은 부드럽게 하고 마음은 평온하게 해야합니다.

몸이 부드러우려면 음식을 절제할줄 알아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합니다. 마음은 화두일념으로 나아가되 다른곳에 집착하는바가 없어야합니다. 빨리 깨치겠다는 생각도 집착입니다. 몸이 뻣뻣하거나 긴장한 상태로 좌선을 오래하면 상기증세가 나타납니다. 또한 마음에 잡된 번뇌망상이 많으면 몸은 꼼짝않고 앉아있는데 마음은 온갖곳으로 나돌아다니게 되니 심신이 일여(一如)하지 않아 좀이 쑤시고 홧병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좋은 생각도 놓고 나쁜 생각도 놓고 놓는다는 생각마저도 놓아 나가야합니다. 깨친뒤에야 묘용이 있으니 상관없지만 수행과정에서는 몸과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유하심자 자귀의만복(凡有下心者 自歸依萬福)이라 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자에게는 만가지 복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어쩌면 이 하심이야말로 수련의 알파요 오메가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한 하심으로 수련하다보면 아상이 차츰 벗겨지고 탐진치도 즈금씩 소멸되어 갑니다.하루 세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은혜가 지중한데 갖은 감투에다 중상모략이나 일삼는 무리들은 업만 짓고 있는줄 알아야합니다.

하심이 안되는 이유는 '나'라는 생각과 옳고 그름에 더한 분별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견문이 좁은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한쪽의 좋은 작품은 백번을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고 감람(橄欖)을 씹으면 처음에는 떫지만 씹을수록 맛이나듯 하심하는 자에게는 그와같은 공덕이 스며듭니다.

하심하는자에게서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양화와 달리 한국화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합니다. 흔히 한국화는 여백의 예술이라고도 하지요. 먹으로 나타내어진 그림구도가 여백에 의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여백은 단순한 빈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구도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제역할을 하는것, 이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심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상과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는것도 한 방편입니다. 완벽한 선지식은 아상은 물론이거니와 생사(生死)까지도 쉽게 넘어갈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무릇 타인을 가르치려면 삼생의 인연도리는 알아야합니다. 전생에 하던 공부를 현생에 이어갈수 있게끔은 할수 있어야 남을 가르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잡동사니 철학에다 줏어들은 풍월이나 읊조려서야 밤낮 분별시비 경계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신라 법광스님은 6세때 벌써 3생인연을 꿰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사람은 입태출태시에 매해버리고 맙니다. 오고감이 없는 무생멸경지에는 이르러야 선지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가 혼탁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스승과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제대로 된 교육과 정치력의 부재에서 유래합니다.

이러한 병리현상을 치유하려면 자존심을 회복해야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자존심이 강해야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모방하는데 미쳐 있어서야 어떻게 나라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아집과 아상만 강하지 진정한 자존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동등의 권리만 좇고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제구실을 못합니다. 여성이 여성다울 때 남성이 남성다울 때 세상은 조화가 이뤄집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빨리 깨쳐야겠다는 조급함도 욕심 “놓는다는 생각마저 놓고 정진하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계층 세력간 갈등이 심각한데…

문 사람들의 이기심때문에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계층간 지역간 세력간의 갈등이 심각한데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노승호·경기 오산시 천호동)

답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부산서 왔든 광주서 왔든 대구서 왔든, 어디서든 오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는 길은 알아도 되돌아가는 길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 혼란이 생기겠죠.

우리에겐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어서 이 두길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쳐서 작용을 해야만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데로 나고 들며 돌아갈 것인데 그게 조화롭지 못하니까 그냥 어지럽고 곤경이 닥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물질세계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여지껏 살아온 방식대로 인과 업보 유전 관념… 이런 걸로 꽉 뭉쳐있으니까 부작용 투성이고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공덕이 없습니다. 모두들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괄적인 하나이지.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수만개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로 만들수도 있고 그 하나마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계에 눈 뜨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형상계에만 매달려 살고 있으니 이건 오는 길만 알았지 가는 길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거죽만 알았지 뿌리 깊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 나고 가장구 나고 열매 맺는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마음 속 깊이에서 자기의 근본이 발현되어야만 제대로 굴릴 줄도 알고 대처할 줄도 알게됩니다.

이중적 성향이 고민입니다

문 저는 유달리 이 일 저 일 현실문제에 대해 욕심이 많습니다. 특히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을 때는 공부를 잊고 감각적으로 누리려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주인공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어떻게 합니까.

(전재석·인천시 남구 주안동)

답 그거 이중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주인이 있으니까 육신을 갖춰서 나왔고 나왔으니까 어느 것 하나 그냥이 없이 들이고 내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지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인가요?

누가 악을 쓰고 떠드니까 절로 눈이 가고 귀가 가고, 그래서 관단이라는게 생기고… 그렇게 호응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게 따로 따로일까요?

사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그 공부했다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앞서 입력한데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다 되놓아라 하는 것 이지요. 나온데다 되맡겨라,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안된다고 말 할게 아니라 안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되게 할 수 있는 법도 있을 테니까 거기다 되 맡겨라 이것이죠.

언젠가 공양간에서 내일 아침 쌀거리가 떨어졌다고 야단이 났더랬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으냐고 발을 구르는데 온통 사량으로 야단법석이란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 돌에 세워놓아도 산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엔 당장 밥 굶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밤중에 누가 쌀가마를 싣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연고냐? 말없는 곳에 마음의 끈이 다 가설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무심도이죠. 그래서 이 법은 광대무변한 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믿지 못하고, 제 마음 다스려서 믿고 놓을 줄은 모르니까 이거 50%, 반쪽이 되고 가는 길 밖에 모르는 꼴이 된다 이 겁니다.

좀 어설프면 어떻고 잘 안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 거기서 하는 것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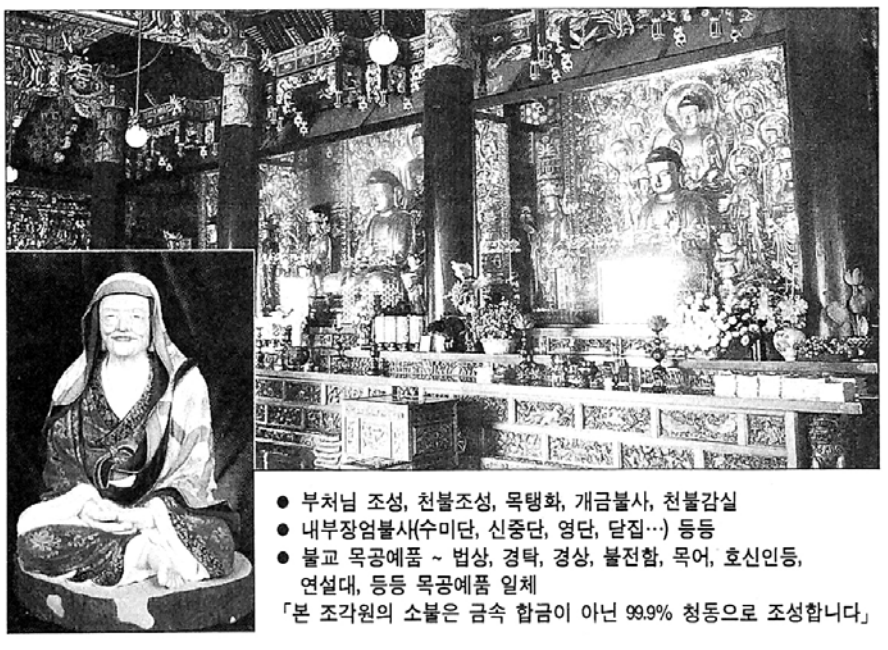
그리고 그렇게 좀 믿고 맡겨 보아야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둘 아니게 마음의 광력 자력 통신력이 발현이 되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 공부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에 머물고 말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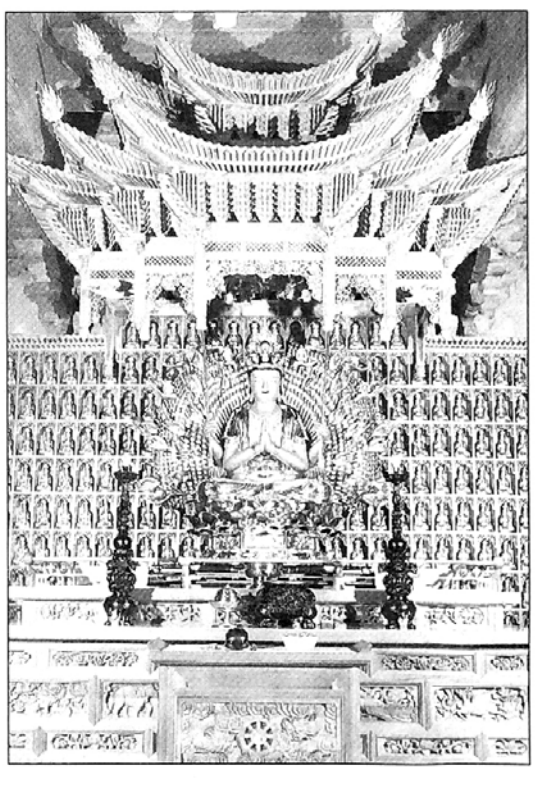
그러면 오밤중에 쌀을 가져온 사람은 왜 그랬느냐? 내일 밝은 날에 심고와도 되는데 그 밤중에 꼭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심한 가운데 끈과 끈으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서로가 다 직결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가설된 상태이지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가 본 합존불

우 내가 무색계의 어디 즘에서 거의 추락하다시피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그의 귀에 들려온 뭉! 소리는 무색계나 색계의 그것이 아니라 욕계의 그것이었다.

그 욕계 한복판의 소리를 어떻게 그 세상 밖의 까마득한 천상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녀는 그런 사실에 어떤 의심도 일으키지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도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조금도 무리한 현실이 아니었다.

의 원시적인 합일(合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 어느 쪽도 눈이 없다. 눈이 없다는 것은 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눈을 떠서 너와 나라는 분별을 아는 일이야말로 본질 혹은 본래면목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일에서 분리 속의 너와 나로 하여금 서로 다른 상태인 별개(別個)로 나누어져 중생의 여러 현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원시적 합일의 기쁨속에 있는
인담과 합두를 본 순간
우녀는 타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일 하나도 다함없는 다라니(陀羅尼) 아닌 바가 없어야 하였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저 스쳐버릴 수 없는 한 광경이 담겨서 색계의 여러 하늘을 지난 뒤에도 그 광경만이 선열한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 광경 속의 남자는 인담이었다. 그와 함께 있는 여자는 아름다운 합두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광경 때문인지, 우녀는 무색계의 어디에서 내려오는 동안의 무감각 상태와는 달리 그의 온몸이 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하였다. 그 아픔은 욕계 사바세계의 질투 따위와는 다른 내공적(內功的)인 아픔이어서 무적이나 정신 똑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래서 최초의 합일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정진이 바로 너와 나로 나뉘어져 있는 생명을 하나로 만드는 성행위야말로 성을 벗어나는 환희와 자유 그리고 이제까지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탄트라의 일이 아닌가.

그것은 부처님 입멸 이후의 금욕적인 장로불교나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대승불교를 지나 새로운 비의(秘儀)에 의한 깨달음의 장관에 도달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바로 남자부처와 여자부처가 한없는 기쁨을 꽃피우는 성행위의 좌상이야말로 남녀합환을 그려내는 합존불의 뜻이 아니겠는가.

우녀는 그렇게도 평화로운 얼굴, 그럴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얼굴로 된 인담에 대하여 놀라움 투성이었다.

언 제 저 스님이 저렇게 기뻐하고 있었던가?

우녀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그 기쁨은 우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힘이 있었다. 마치 그 인담이 우녀를 부둥켜 안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 인담과 우녀가 함께 그 기쁨으로 합일되어 있는 것처럼.

우녀는 인담의 상대방이 합두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쁨이 다른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아 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무색계의 그 기쁨이 여기서는 아픔이 되고 있다 라고 우녀는 혼자만의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들어줄 인담이 없었던 것이다.

대일여래(大日如來)와 그의 아내인 미인이 앉은 채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아주 잔잔한 호수의 잔물결같은 음악 그 자체로 성행위를 이어가는 그 광등과 초자아적인 기쁨에 대해서 거기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색계 천상의 그들은 아무런 예배도 바라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의 우녀 역시 그의 무욕도에 돌아와서도 어떤 신도와의 관계도 없는 여생을 살고자 하였다. 그것은 그가 누구의 교사가 되는 일도 그런 의무를 갖는 일도 아닌 상태의 자유 가운데서 그의 기쁨을 남고 싶은 소원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성(性)이 아닌 새로운 성에의 드높은 기쁨에로 이어져야 할 우녀의 새로운 자유이기도 하다. 그는 그런 사람으로 무욕도에 돌아왔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성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때 "뭉!"하는 소리가 섬 전체를 울리며 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꿈꾸는 창조와는 다른 쪽에서 그 창조에 기여하는 파괴의 소리이기도 한 것인가. 무욕도 왓폭의 고사목들과 살아있는 나무들이 이렇다할 바람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뭉! 소리와 함께.

그는 인담의 광경 이외에도 그가 내려오면서 스쳤던 것들을 뒤늦게 도착함으로써 채삿날 쓰지 못했던 제수(祭需)처럼 그의 기억 속에서 반추되기도 하였다.

"쓸데없는 일이로다. 장난이로다"라는 그의 독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치된 바 음 가운데서 그 지각한 기억들이야말로 재벌때로 솜추는 떠돌이이기도 한 것이었다.

인담과 합두는 그렇다치고 불이와 합두가 함께 있는 욕계 도리천 남쪽 성의 숲속은 바야흐로 어떤 괴이한 짐승이라도 그 안에서 천년쯤 숨어있다가 뛰쳐나온 것처럼 많은 것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숲의 거죽이나 바깥 윤곽만으로도 그 숲 내부를 채우고 있는 넘쳐나는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실감이 그곳을 천상보다 지상에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거기서도 불이는 지난 날의 기품있는 남자였고 합두는 아름답고 어떤 일에나 항상 뒤따르는 태도로 성급할줄 몰랐다.

그런데 그 광경 속의 합두를 기이하게도 고대의 한 여왕으로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선덕여왕이었다. 왜 우녀에게 합두와 선덕여왕이 함께 떠올랐는지 그 까닭은 알 길이 없지만 합두는 어느덧 옛 여왕의 얼굴로 되는 것이었다.

신라의 명랑(明朗)에 앞서 밀교승 12명이 당나라의 동해 침공을 막기 위해서 문두루(文豆婁) 비법을 행함으로써 밀교의 사천왕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나 선덕여왕의 병이 명랑과 함께 산 밀본(密本)에 의해서 치유된 사실이 우녀의 마음 가운데 잠겨있지도 않았다.

그 런데도 우녀에게는 그 선덕여왕의 얼굴이 합두의 그것과 겹치는 것은 합두의 전생 어디와 선덕여왕의 후생 어디가 하나인 것을 알려주는 숙명의 힘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도리천에서 도솔천 쪽으로 올라가 있는 만월 길성 순풍의 세 쌍둥이도 얼핏 알 수 있었다. 아니, 어린 아이로 살고 있는 상수의 한쪽 어깨에는 작은 흉터가 빛나고 있었는데 그 흉터는 무욕도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이었다. 상수의 송장헤엄이 파도 때문에 민첩하게 뒤집혀질 때였던가.

전생의 흉터가 다음 세상에도 그대로 지닌 것이라면 전생이나 다음 세상의 삶도 슬픔이나 괴로움도 어느 한쪽만은 감당하는 덧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다 멈추어서 그것이 아닌 다른 상태에 그 자신을 두고 싶었던 것인가.

우녀의 시간은 무욕도의 현실로 돌아와 해가 뜨고 그 해가 지는 오랜 나날의 되풀이였다. 더이상 그는 이곳을 떠난 사람들의 현상과 닿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어제까지 빛나는 등불이었다가 오늘은 꺼져있는 그런 상태의 우녀는 초롱초롱한 눈길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도 이따금 잊어버리고 지나쳤다.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야말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아닌가. 그런 실감에 누누히 간과되는 무중력상태의 시간이 우녀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굳이 그런 실감을 어디다 견준다면 그것은 남녀가 성을 통해서 도리어 성을 버리게 되는 상태일지 모른다. 그런 성행위의 절정을 넘어서 찾아오는 그 허상이야말로 전혀 혼자인 우녀 속에서의 두 개의 자아가 이룬 체험적 상상이기도 한 것인가.

이상한 일은 그런 우녀의 기나긴 권태와도 같은 고독 안에 이따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감이 난바다의 어딘가에 있는 담수처럼 확보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두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는 지금 혼자인지 몰랐다. 아니, 그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길기 위해서 현재의 어떤 공동(空洞) 속에 그 자신을 담가두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뭉!"

섬에서 몇10리 떨어진 바다 복판에서 물기둥이 솟으며 그 소리가 났다. 우녀는 그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이 다하여 다른 곳이 되는가."



그림 · 조항숙

"이곳이 다른 곳이 되는가" 무욕도의 현실로 돌아온 우녀는 …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현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청소년이여! 문화유산 공부하자"

문화재 보호재단 '전통예술' 등 3종 문화유적지도 홍보만화 등 11월제작 초·중·고교 보급

'어려운 한자어에 전문용어 투성'. 우리 문화유산 관련 도서의 현실이다. 좀더 쉽게 우리 문화유산을 보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전배)이 깊이가 있으면서도 알기 쉬운 문화유산 관련 교육용 도서를 제작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무형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전통예술〉, 〈한국의 전통공예기술〉 등 도서 3종과 문화유적지도, 〈문화유산, 그거 얼마짜리죠〉라는 홍보만화가 그것. 오는 11월까지 제작, 초·중·고교의 일선교사와 청소년들에게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교양도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건축·조각·금속공예·회화·전적·도자기 등 각종 유형문화재를 시대별로 정리하며, 〈한국의 전통예술〉은 음악·무용·연극·놀이·의식 등 무형문화재 중 전통예능분야를 〈한국의 전통공예기술〉은 토기와 도자기를 비롯 금속·옥칠·악기·단청·염직·옥석 등 전통공예분야를 소개한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최몽룡교수(서울대 고고학과)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하며 각각 국판 5백쪽 내외로 2천부를 보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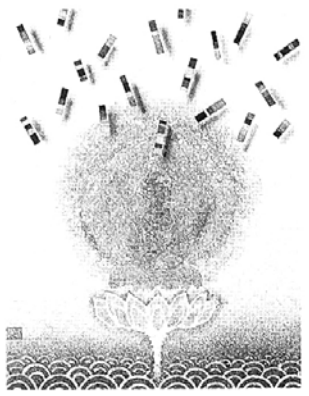
문화유적지도는 안내원 없이 보고 싶은 문화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기 쉽고 휴대하기 편한 2/4절판 3백쪽 내외의 책자로 제작된다. 이 책자는 학술적 가치보다는 대중성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전국을 7개 영역으로 나눠 시도군별 연혁·풍속·인구·문화적 특징 등 지역개관과 함께 박물관·공연장·국도립공원·해수욕장 등 관광레저휴양지 등을 수록,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 2백여컷의 지도와 5백여건의 문화재 사진이 수록되며 2천부가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홍보만화 〈문화유산, 그거 얼마짜리죠!〉는 20쪽 내외로 10만부를 발간,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허욱씨는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우리문화를 소개해 누구나 문화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동국미술인회 지장시왕展



◇곽동해作 「온누리에 오소서」

동국불교미술인회가 '지장시왕(地藏十王)'을 주제로 한 테마전을 마련하고 전시회에 맞춰 〈알기쉬운 불교미술〉을 발간한다.

10일부터 23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동국불교미술인 회원전에는 지장시왕의 세계를 주제로 한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전연호회장은 "모든 지옥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날로 각박해지고 혼탁해져 가는 현대사회속에 두루 미치어 정신적 풍요가 있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지장시왕의 사상을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밝힌다. 한편 이번에 발간되는 〈알기쉬운 불교미술〉은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집대성인 사찰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불교미술개론서이다.

10~23일 공평아트센터 「알기쉬운 불교미술」도 발간

화제의 전시



◇운주사 사진전에 나온 「미륵불투산」

사진으로 보는 운주사의 어제

26일까지 전남대 용봉관 힐트만교수 기증작등 전시

전남대박물관(관장 전형택)이 오는 26일까지 전남대 용봉관(구 학교본부)에서 운주사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륵〉의 저자인 독일인 요헨 힐트만교수가 기증한 운주사 사진 37점을 중심으로 〈조선고적도보〉(6·7권, 1920년)에 실린 운주사 사진 6점, 〈전남사진지〉(1917년)에 실린 운주사 사진 1점 등이 선보인다. 〈조선고적도보〉와 〈전남사진지〉에 실린 사진들은 1920년대 이전의 사진들이고, 힐트만교수가 기증한 사진들은 1980년대의 풍광들이라 최근 대형불사로 변해버린 오늘날의 운주사와 비교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시의 선시적 요소 종말론적 인식 '극복열쇠'

송명희교수 '현대시의…' 발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과 공허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현대시에 반영되고 있는 선시적 불교적 요소가 보여주는 형이상학적 깊이와 튼튼한 사유의 틀은 깊은 감동의 세계를 경험케할 것이다."

송명희 교수(부경대)는 8월27일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 주최의 불교문학 여름 세미나에서 〈현대시의 불교적 가능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주요시인들의 작품을 분석하며 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선시적 경향이 21세기의 시가 종말론적 세계인식과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송교수는 향가로 시작되는 전통시의 불교적 색채가 현대의 선시풍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통해 불교라는 시적 배경이 매우 친숙한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남선 시인의 시조집 〈백팔번뇌〉로부터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40년대 서정주 시인의 〈화사집〉, 60년대 고은 시인의 〈피안감성〉, 90년대 불교적인 기법을 채용한 황지우 시인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시 속에 나타난 불교적인 색채를 선시와 불교시로 구분해 접근했다. 황지우 시인의 선시는 선사의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선시의 기법을 모방하고 채용한 선시의 패러디라는 표현을 통해 선시의 현대적 변용을 풀이하기도 했다.

송교수는 현대시에서의 선의 수용이 선시의 서정적 구조를 따온 문학양식인 만큼 깨달음의 체험을 통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의 탐구로 현대시에 부족한 깊이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시로는 '생의 유한성'을 시적 화두로 삼고 있는 오세영 시인의 내면세계가 고스란히 배어난 시집 〈무명연시〉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작품들이 담긴 윤제림 시인의 시집 〈황천반점〉은 유마거사의 불교행을 본받은듯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 이영일 시인의 〈금생을 찾아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했다.

송명희 교수는 "불교적 상상력과 세계관은 현대시가 빠지기 쉬운 종말론적 인식, 허무주의와 철학성, 형이상학적 깊이의 결핍을 극복해나갈 하나의 가능성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를 결론지었다.

강지연 기자

문화 소식

오느름 국악공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악실내악단 오느름(음악감독 김회경)이 4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국악원 우면당에서 특별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는 '축연무'(박범훈 작곡), '가야금 삼중주' '창부타령을 주제로 한 피리협주곡'과 김회경 작곡의 찬불가 '운주사' 이연실작의 '민들레' 이용학작의 '박씨 물고온 제비' 등 모두 10곡이 연주된다.

서영석씨 개인전

불자 화가 서영석씨가 '자연속의 시간'을 주제로 한 시리즈전을 오는 7일까지 부산 롯데화랑(051-810-3788)에서 열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는 절제된 화법과 구륵진채로 그린 '달마' '불심' 등 5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석굴암 CD타이틀 출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이 삼성전자에서 CD롬 타이틀로 출시됐다.

석굴암의 과학적인 조형성과 역사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타이틀은 다양한 각도의 석굴암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확대·축소가 가능하며 석굴암의 구조와 내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매 장마다 통일된 화면을 배치하고 간결한 형태의 아이콘을 사용해 컴퓨터를 모르는 일반불자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석굴암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



원각사비 보호각 공사

서울시는 탑골공원 안에 있는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사진〉가 보호시설물 없이 방치된 채 비바람에 마모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호각을 설치하기로 하고 27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보호각은 정면3칸, 측면3칸의 사모지붕 형식의 전통한식으로, 내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불심시심 〈99〉

애정의 그루 자를까

情愛吾今欲釋然 (정애오금욕석연)	정과 사랑 이제는 떨쳐 버리려 하나
運爲無奈每逢緣 (운위무내매봉연)	운수처럼 항시 인연을 만나니 어쩌나
偶分袖袂柔腸惱 (우분수메유장뇌)	우연한 이별 소매에 여린 창자의 번뇌 일고
長憶容顔片貌懸 (장억용안편모현)	길이 기억되는 얼굴 꿈 속에 매달리는 모습
根結塵寰零易斷 (근결진환녕이단)	속세에 맺은 뿌리야 차라리 자르기 쉽지만
燈迷劫海苦難傳 (등미겁해고난전)	법등은 겁의 바다에 흐려 전하기 어려움 괴롭다
何時鍊得金剛劒 (하시련득금강검)	어느 때나 이 금강의 칼 단련시켜
斬破深株莫使連 (참파심주막사련)	저 깊은 그루 잘라 더 잇지 못하게 할까

이 시도 용담대사의 시이다. 제목이 '정애(情愛)'이다. 승려이기 이전에 한 자연인으로서 끊기 어려운 사랑과 정을 솔직히 고백한 시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용담의 시세계를 말하면서 "정으로 정을 끊는 시"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해서 한 말이었다. 참다운 깨달음이란, 세속을 벗어나 진리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지만, 진리의 참 모습을 알고 나면, 속인의 세속이 바로 진리의 현실임을 아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곧 세속을 벗어나는 출세간에서 다시 그 벗어난 세간을 벗어나는 출출세간인 것이다. 이 시는 이러한 출출세간의 상태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시에서는 사랑과 정을 이제야 놓으려 한다 하였지만, 왜 지금 이겠는가. 스님의 수도는 항시 이 세속의 애정을 단절하려는 수련이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라 한 표현도 기실은 겸손의 말이다. 그러나 운수라 하든, 작위라 하든,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면 끊기 어려움이 또한 이 정과 사랑이다. 스님은 이런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정과 사랑의 실상을 음미해 보려 한 것이다.

이별을 두고 애 끊는 아픔이라 하고, 이러한 단장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항시 꿈 속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업의 근기로 맺어진 것이니, 이것을 이기려면 세속적 뿌리를 단절해야 한다. 여기에서 출세간의 벗어남이 있으니 이 벗어남은 쉽게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의 법등이 흐리면 이 벗어남의 진리를 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저 금강의 칼날을 갈아 단칼에 이 애정의 그루와 뿌리를 잘라 버려야 한다.

대사의 이 시는 이렇듯 출출세간의 어려움을 읊었다 하겠다.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을 벗어나는 참다운 해탈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정찬주씨 '그곳에 부처…' 출간

94년 발표 '훨훨' 개작



지계와 파계의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방편으로 불법을 구하는 두 수행자의 구도행각을 다룬 구도소설 〈그곳에 부처가 있다〉(좋은날 刊)가 출간됐다. 이 소설은 94년 가을 〈훨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던 작품을 개작한 것이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20여일 동안 혜초스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좇아 인도순례에 나섰던 저자 정찬주씨〈사진〉는 일반인들이 인도여행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 속에 생생한 체험을 녹여내고 있다.

〈그곳에 부처가 있다〉는 황룡사 9층탑을 모태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천불탑 건립을 일생일대의 큰 서원으로 세운 지웅스님과 참선수행자로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법상스님이 중생교화와 수행이라는 다른 길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소설에서는 두 스님의 대립·갈등구조가 천불탑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사이자 컴퓨터 매니아인 최림이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스님들의 수행을 보며 자신 속에 내재한 불성을 깨닫는 것으로 두 스님의 갈등이 해소된다.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가을, 스님들 수상집 읽노라면 깨달음의 향기가…

산문 안과 밖 '연결고리'

'스님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 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행
: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스님들의 일상사에 대한 궁금증도
소시켜주고, 불교의 가르침은 생활
에 숨어 있으며 스님은 수행자이면
친근한 우리의 이웃이자 벗이라는
을 일깨워주는 첨병. 법정스님의 〈
무소유〉 이후 꾸준히 출간행렬을 이
고 있는 스님들의 수상집이다.
이 수상집들은 스님들이 출가, 수
, 포교 과정에서 직접 겪은 생활
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재치있게
려내 딱딱한 불교교리서를 통해 불
교를 무작정 어렵다고만 느끼는 일반
들을 불교에 한걸음 다가서게 한
다. 또 불자들에게는 난해한 법문보
다 더욱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
떤것인가를 이해하게끔 이끌어주는
대중적인 불서로 정착하고 있다.
생활속에서 접하게 되는 갖가지의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
과 스님의 경험담을 적절히 녹여내
기도는 실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타스님의 〈기도〉 〈생활 속의 기도
법〉(효림), 인기를 누리며 4권까지 발
간된 우학스님의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1, 2, 3, 4〉(좋은인연)등이 대중
적인 인기에 불씨를 댕겼다. 파주 보
광사 주지인 효림스님은 〈자네 道가



'기도' '힘든세상…' 등 인기
수행·포교과정 솔직하게 전달

원지 아나〉에 이어 올해초 〈힘든 세상, 도나 닦지〉(가서원)를 발간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수상집은 스님 자신에게 감명과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준 30여명의 독특한 스님이야기를 담담한 필치로 엮어냈다. 현진스님(청주 관음사)도 지난해 펴낸 학인시절의 생활담과 지대방 이야기를 실은 〈삭발하는 날〉에 이어 올해 포교 수행과정의 이야기를 〈두번째 출가〉(새날)에 담았다.

스님들이 펴낸 수상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법정스님의 〈무소유〉는 출간이래 지금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석용산스님의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가지〉도 오랜동안 인기를 얻으며 대중속에 파고들어 불교의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여기에 올해들어 최근까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로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온 조정관스님이 청정산문에서 바라본 참된 삶에 대한 사유를 〈삶의 새싹〉(부다가야)에 옮겨 담았고, 불교신문사장 정휴스님이 〈천수천안〉(출판시대)을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포교의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해온 이야기들을 모아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여래)로 펴냈다.

이밖에도 〈벙어리 절간이야기〉(중광, 기린원), 〈이젠 마음비우거라〉(혜인, 삶과꿈), 〈걸망에서 배운 인생〉(삼중, 태일출판사),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법륜, 모색), 〈바람의 길〉(지현, 민족사) 등 수십권에 이르는 스님들의 수상집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현재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된다는 독자들의 반응처럼 지금 자신의 정체된 삶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올가을 스님들의 수상집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깨달음의 그윽한 선향을 음미해 보기를 권한다.

이은자 기자

화제의 책

사십이장경 이야기 | 지문·현림 공저



현실고통 극복방법 비유통해 제시

인생의 무상함을 바로 알아 참 부처의 길을 갈 것을 제시한 것이 불교다. 그런 가르침이 8만4천법문이다.

불교의 여러 경전중의 하나인 〈사십이장경〉은 이 8만4천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수행에 관한 말씀을 여러 경전에서 선택해 42장으로 정리해 놓은 경전이다. 근본불교의 사상을 대변하는 〈아함경〉과 〈법구경〉이 주로 인용됐으며, 일심(一心) 법문의 사상이 관통하고 있다.

지문스님과 현림거사가 공저한 이 〈사십이장경 이야기〉는 현실세계의 고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간명하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준다. 간결하면서도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잘 아우르고 있어서 옛부터 불교의 입문서로 애독돼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사십이장경〉을 해학과 소어(笑語)를 곁들여 해설하고 있다. 〈불교시대사 8천원〉

승가대 불전국역硏 첫 산물

'화엄경현담 1' 번역 발간



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에서 불전국역총서 〈화엄경현담1〉을 번역발간했다.

불전국역연구원 제1회 졸업생들이 졸업기념으로 펴낸 이 책은 당나라 청량국사 징관이 지은 〈화엄경소초〉의 현담부분을 번역한 것으로 불전국역연구원의 첫 산물이기도 하다.

현담이란 경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그 경전의 강요(綱要)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옛날 스님들이 대부분 경전을 강의하기에 앞서 현담을 설하였고, 지금의 해제에 해당한다.

현담은 〈화엄경〉을 1. 교기인연(敎起因緣) 2. 장교소섭(藏敎所攝) 3. 의리분제(義理分齊) 4. 교소피기(敎所被機) 5. 교체심천(敎體深淺) 6. 종취통국(宗趣通局) 7. 부류품회(部類品會) 8. 전역감통(傳譯感通) 9. 총석경제(總釋經題) 10. 별해문의(別解文義)의 십문으로 나누어 화엄경의 개요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번역한 제1권은 이 십문이 나오기 전의 왕복서(往復序)만을 해석했다.

불전국역연구원은 앞으로 이 〈화엄경현담〉을 순차적으로 번역발간할 계획며, 화엄학 연구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외에 우리불교의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낫 한	한 민
3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림
4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5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6	한글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7	원효	고 영 섭	한 길 사
8	인연(작은책 3)	서 정 주	민 족 사
9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유 홍 준	창작과 비평사
10	밥 그릇이나 씻어라	이 은 윤	자작나무

구입문의:(02)737-0695

출판가소식

지장기도 길잡이책 나와



◇진관스님

지장기도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지장기도 그리고 영가천도〉(지장신앙전법회 刊)가 출간됐다.

한국불교 원각종 지장암 포교원 주지 진관스님이 집필한 이 책은 지장보살과 지장기도에 대한 이해에서 부터 천도기도와 인연공덕, 지장기도시에 행하는 지장예문 및 왕생기도문과 지장기도 영험록을 담았다.

지장신앙과 이 책의 법공양에 관심있는 이들은 지장신앙전법회로 문의하면 된다.(062)232-5774

작년 신간불서 193종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펴낸 〈'97 출판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새로 나온 책 총 2만6천6백64종 가운데 불교서적은 19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3종의 불서가운데는 사찰에 관한 내용이 67종으로 가장 많았고, 교리철학과 관련한 책이 37종, 법어와 신앙생활에 대한 책이 32종을 차지했다. 또 전체불서가운데 27%에 달하는 52종이 외국번역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서적 전체 1,718종 중에서 불서는 단 11%에 불과한 반면, 기독교계 서적은 불서의 6배에 달하는 1,113종이 새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지난해 3월 현재 출판협회에 등록된 불교간행물은 221종으로 종교간행물 1,718종 가운데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빠사나 수행법의 모든것

법산스님, '중도선' 펴내



〈중도선〉은 위빠사나 수행법을 우리말로 소개하면서 저자인 법산스님(은해사)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이 책은 〈대념처경〉의 해설을 중심으로 위빠사나 수행법을 담았다.

이 책은 전체 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장은 싯달타 태자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나고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의 과정과 출가, 그 이후 여러스승들과의 만남과 시행착오의 과정, 그 와중에서 어느 정도 수행의 진보를 이루나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깨닫고 홀로 수행정진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2장은 그러한 깨달음의 내용을 4성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제3장은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장으로 〈대념처경〉에 대한 해설과 그에 따른 수행법을 이루고 있다.

〈대념처경〉은 남방불교에서는 현재까지도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 경전으로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그 실상을 꿰뚫어 깨닫게 하는 명상법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저자는 대념처경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행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몸, 느낌, 마음, 법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한 어떻게 마음을 챙길 것인가를 호흡이나 자세, 명상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의 현상을 구분하여 알아차리는 명색지(名色智)로부터 모든 애착이나 집착 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소유와 절대평등의 아라한과에 이르기까지의 해탈에 이르는 16가지 관문의 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장애,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이 명상법의 중국적 변용인 조사선에 대해 그 발전과 쇠퇴의 역사적 과정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은〉

새로나온 책

▲행복을 향한 구도의 불꽃=경북 영천시 충효사 주지 해공스님의 두번째 법문집이다.

이 책은 세상을 살아가며 맞부딪치게 되는 고통들을 불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주제아래 '좋은 인연을 맺는 지혜' '착한 공덕을 쌓는 지혜' '건강하게 사는 지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지혜'를 상세하게 설한다. 〈솔바람 7천원〉



▲단식이야기=건강하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단식을 통해 심신의 활력을 되찾도록 이끌어 주는 책이 〈단식이야기〉다.

총체의학에 관심을 갖고 지난 30년간 단식요법을 연구해온 내과전문 의학박사이자 시인인 임평모씨가 저술했다. 〈자료원 8천원〉

▲천년을 이어온 겨레시조=한국불교문학협회 회원인 시조시인 차경섭씨의 시조집이다.

시조문학의 침체기에 우리의 전통시이자 정형시의 전통계승을 위해 출간된 이 시조집에는 '번뇌' '낙산사' 등 불교적 정서의 시조를 비롯 우리 전통정서를 담은 73편의 시조가 담겨있다. 〈영하 7천원〉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0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혜원 엮음
신국판 26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강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舊역본 3백여곳 오역등 발견"

'일승법계도합시일인' 펴낸 김지견 박사



◇해인사 판본 〈총수록본〉에 실린 '일승법계도합시일인' 전문.

"의상스님이 만든 법성게(法性偈) 인장(印章)을 법계도니 화엄도해인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불교의 영향입니다. 해인사 판본의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에는 '일승법계도합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장의 이름을 찾는 것에서 의상스님의 해동화엄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지견박사(전통불교연구원장)는 최근 〈법계도기총수록〉(이하 '총수록본')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를 새롭게 번역하고, 구(舊)역본과 교감·역주해 오역(誤譯)·탈자 등을 바로잡은 〈일승법계도합시일인〉(초롱 刊 6천5백원)을 출간했다.

'가지가지의 꽃으로 장엄된 일승(一乘)의 진리로운 세계의 모습'이라는 뜻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은 의상스님(625~702)이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간결한 시(詩)로 축약한 법성게를 54각(角)이 있는 도인(圖印)에 합쳐서 만든 것. 그동안 국내 불교학계는 〈대일본속장경〉〈대정신수대장경〉 등 일본의 대장경만을 근간으로 번역해왔다.

화엄일승법계도 原名 '일승법계도합시일인'

그러나 김박사는 "〈총수록본〉과 일본의 대장경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을 비교하면 3백여곳에서 오역 탈자 파자(破字)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박사에 따르면 〈총수록본〉에서 '무장애법계법'은 연기의 본체인 상황의 현화 요소는 세계 안에 존재한 것으로 풀이돼야 하는데 〈대정신수대장경〉에는 이 요소를 세계 자체로 해석하고 있다.

김박사는 "세계는 상황이고 연성(緣成)이며 장(場)이기 때문에 연기의 본체를 세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대정신수대장경〉이 오역임을 지적했다.

또 "〈총수록본〉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에서 '일승소목'(一乘所目)은 '일승(一乘)에 붙여진 편의상의 명목'으로 해석된 반면 구(舊)역본에서는 '일승소목'을 '일승의 목적'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일승(一乘)에 붙여진 편의상의 명목'으로 해석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총수록본〉에서 '즉불자재 불자재자'(卽不自在 不自在者)는 〈대정신수대장경〉에서는 '즉불자재자'(卽不自在者)로 기록돼 '不自在'가 탈락됐다"며 "'自在'는 '자체로서 존재는 것'으로 존재의 근거를 자체에 두고 타(他)에 원인·조건 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대정신수대장경〉의 탈자(脫字)도 지적했다.

"원래문장 밝혀 화엄사상 바로전달"

김지견박사는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의 저본을 잘못 선택해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왔다"며 "이 책이 해동화엄의 정수를 살피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남북은 한우리 공동체" 법혜스님 논문 발표



법혜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이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UN을 중간자로 한 남북통일방안'을 주제로 8월20일 국가정책과정 졸업논문을 발표했다.

법혜스님은 "색(色)으로 보면 남·북은 구분이 되나 공(空)으로 보면 남·북은 일체(一體)인 것"이라며 남·북·UN 등이 '한우리공동체'를 설립해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했다.

세계한민족학술대회 정신문화硏, 4~6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이 제4회 세계 한민족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21개국 30여명의 해외 한국학 학자들이 참여할 이번 학술회의는 '21세기 재외 한인의 역할'을 주제로 9월4일~6일 2박3일간 개최된다.

"승가수행법으로 환경화두 풀자"

문영석박사 논문…자비·채식등 대안제시



한국 승가(僧家)의 정진·채식·고행 등과 같은 절제된 수행법과 자비와 무해(無害)의 수행관이 현대사회에 투영되고 인간의 의식을 개혁할 때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코리아 저널〉(한국유네스코 刊) 여름호에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승가의 대안'을 게재한 문영석박사(서울대 종교학 강사)는 "부처님이 최초로 승단(僧團)을 이끌 때 인도 고대 사상인 아힘사에서 승가의 생활 규범을 세웠다"며 "한국 승가의 수행관에서도 비폭력 뿐만 아니라 무해(無害)·자비 등도 담고 있는 아힘사 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승가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채식·고행·정진 등은 수행자가 세속적인 가치와 관심의 틀을 버리고 자신을 얽매는 삼독(三毒)에서 벗어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한 문박사는 "이 수행법은 단순히 사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고귀한 깨달음을 얻고 대중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며 "극도로 절제된 수행법에서 생태학적 환경윤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관은 수행자의 생활 그 자체"라며 "한국 승가의 수행관·법이 사회의 문화에 접목될 때 소비적인 대중문화와 맞설 수 있는 대안(代案) 문화가 창출되고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불교계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드문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지적한 문영석박사는 "환경공학이 고도로 발전해 폐기물이 잘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환경을 보존할 수 없다"며 "한국불교계는 승가의 수행관·법을 한국사회에 투영하고 환경이라는 화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욱〉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카라빈카 다르마 노트

용수·현장스님 주석서·어록 등 영역소개

'카라빈카 다르마 노-트'는 인도에서 불교가 융성했던 3세기를 이끈 사상가 용수스님(龍樹, 150~250)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논 사이트.

이 사이트에는 당시 인도의 중관학파와 선정문화에 대한 설명과 〈화엄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인도와 중국에서 불교 전성기를 연 용수·현장스님 의 범어·중국어 주석서와 어록(語錄) 등을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

이중에는 용수스님이 〈반야경〉을 주석한 내용도 소개된다. 또 '사무량심' '신념' '목동이 부처님의 전지(全知)를 시험하다' '간타카의 이야기' '수타소마왕이 불법을 찾다' '프라산 네드리야와 아그라마티의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용수스님의 게송 뿐만 아니라 〈용수보살전〉의 일부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범어나 팔리어 등의 원전(原典)을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을 위해 개설된 '카라빈카' 사이트는, 원전공부를 위한 교리강좌도 개설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염화미소(Lotuses and Sunlight Simile) 무아(No-Self) 여시아문(I in Thus I Have Heard) 참선(Dhyaana) 등 50여개의 항목에 걸쳐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로딩'(가져오기)이 가능하다.

http://www.teleport.com/~dh-mitral

나와 경전 20

승만경



안 지 원
서울 신업대 강사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새벽염불 소리를 듣고 뜻도 모른채 따라 하면서 성장하였다. 그 염불이 〈천수경〉이라는 것도, 예수님 이름은 하나여서 천한데 부처님의 이름은 석가모니불에서 관음보살로 또 지장보살로 약사불로 아미타불로 왜 자꾸 바뀌는지의 궁금증을 풀게 된 것도 훗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다. 대학에 들어가 불교사상에 매료되어 불교관계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었어도 여전히 신행생활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처님의 무량무변하신 자비만을 바라며 속인으로서의 하루하루에 바쁘기만 하였다 할까? 더욱이 불교의 차별적(?) 여성관에 대한 거부감으로 부처님께 선뜻 귀의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당시 나의 심정이었다. 현실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수행에 있어서 차별이 심하고 더욱이 성불도 할 수 없다면, 여성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오만한 아상과 편벽된 지식에 집착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한국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자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자연히 더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신라왕실은 이를 적극 후원하여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석가모니불의 부친이었던 정반왕을 본따 정반으로 하고, 왕비는 마야로, 동생들도 정반왕의 동생들의 이름인 백반과 국반으로 이름지었다. 진평왕의 딸인 덕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다. 선덕(善德)이란 왕명도 역시 〈대방등무상경〉에서 석가모니불로부터 전륜성왕이 되리라 예언받았던 선덕바라문에서 비롯된 불교식 왕명이다. 선덕여왕의 사촌동생으로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진덕여왕의 이름은 승만이었는데 이는 〈승만경〉의 주인공인 승만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세분 뿐인 여왕 가운데 두분이 통치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불교와 밀접하였던 것이 흥미를 끌었다. 더욱이 남자를 못지 않게 훌륭히 나라를 다스린 두 여왕을 배출해 낸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적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관련된 경전들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 가운데 〈승만경〉은 불교를 조금 안다고 자부하고 있던 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부처님을 여성차별주의자로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철학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중요 경전은 아닐지라도 〈승만경〉은 우리 여성불자들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여성인 승만부인이 후대에 인간과 천상세계를 다스리는 자재왕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보광여래가 되리라는 수기를 석가모니불께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의 설법으로 펼쳐지는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승만이라는 한 재가여인의 입을 통하여 대승의 진리가 설해지고 있다.

승만경의 본래 이름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으로, 중생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여래장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초기 대승경전이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진흥왕 때인 576년 전래되었으니 무려 1400여년 동안을 이 땅에

'중생 모두 불성' 여래장사상 다룬 경

승만부인의 열가지 서원 '신행좌표'

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경이다.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감격하여 부처님께 서약한 열가지 서원은 〈승만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첫째, 마음으로도 받은 바 계를 범하지 않겠다. 둘째, 윗사람에게 교만하게 굴지 않겠다. 셋째, 성내지 않겠다. 넷째, 질투를 하지 않겠다. 다섯째,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여섯째, 재산을 내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 일곱째, 사섭법을 모든 중생을 위해 행하겠다. 여덟째, 고독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겠다. 아홉째, 죄업을 쌓는 사람을 때에 따라 굴복시키고, 때에 따라 받아들여 구제하겠다. 열째, 정법을 받아들이고 결코 잊지않겠다.

이상의 열가지 서원을 1300년전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승만부인을 귀감삼아 열심히 실천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 열가지 서원은 현대에 있어서도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시작하여야 할 절실한 생활의 실천지표들이기도 하다. 비로소 나는 〈승만경〉을 통하여 열가지 서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을 늘 반성하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린이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어린이 불교 교재
"우리들의 부처님"

어린이들의 고운 마음에 깊고 넓으신 부처님의 가없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은, 그들의 고운 꿈과 슬기로운 지혜를 한껏 일깨워주고, 마음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 꼭 필요하며, 또한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어린이 불교 교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한국 불교 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엮은 「불교 교재 1. 우리들의 부처님」을 관음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책은 부처님의 생애와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 절에서 지킬 예의,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 부모은중경, 그리고 설화등 모든 불자와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 글 : 강석주 스님
■ 그림 : 정운문 스님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더없는 선물입니다.

● 관음 독송경(한정본) 시리즈

우리말 금강경	심재열/102쪽/값 2,500원	불교 성가집	정운문/385쪽/값 5,000원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	심재열/108쪽/값 2,000원	어린이 찬불가	정운문/222쪽/값 4,000원
우리말 물설아미타경	심재열/ 66쪽/값 2,000원	불교성전	불교성전간행위원회/328쪽/값 4,500원
한문 물설아미타경	심재열/ 73쪽/값 2,000원	천수경	이지환/286쪽/값 4,500원
우리말 천지팔양신주경	이정범/ 57쪽/값 2,000원	불교문답	이정범/228쪽/값 2,000원
한문 물설천지팔양신주경	이정범/ 60쪽/값 2,000원		
우리말 예물대참회문	심재열/ 80쪽/값 2,000원		
지장보살본원경	동봉 /338쪽/값 6,000원		
원각경보안보살장·팔양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예불천수경	경홍 / 86쪽/값 3,500원		

※ 법보시용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관음출판사 전화 921-8434/929-3470 FAX 929-347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 체 험 사 례 ●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월초파일날 용님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분출되고, 숙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진문시술원 張三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계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강 좌 태극권·생활역학강좌
문의 02)242-6188
(장안동 촬영소 사거리)
금륜정사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안내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부전스님 모십니다
시달림 · 법문하시는 분
연락처 02)406-3911

포교당 안내

포교당적지안내
◈ 위 치 : 세검정 상명대학 부근 (종로구 홍지동)
◈ 대 지 : 103평
◈ 건 평 : 27평 (실 40평)
◈ 조 건 :
①동향의 높은터로 전망 아주 좋음
②은행융자 있음(급매)
※ 가격은 상담후 조정가능
연락처 923-5162 (1시~3시)
394-6141 (야간)

포교당
● 위 치 : 부산 수영구 광안리
● 평 수 : 5층건물 2층, 42평형
▶ 연락처
051)753-4619 (음성녹음)
0527)53-4887

● 포교당 ●
◇ 위 치 : 서울근교
◇ 평 수 : 100평 -법당 60평, 요사채 40평
◇ 가 격 : 전세 1억
◆ 시설비 : 무료
연락처 015)144-8387

◆ 포교당 ◆
■ 위치 : 서울 금천구 시흥5동
■ 평수 : 3층 23평
■ 가격 : 전세 6,000만원
연락처 02)802-9369

기타정보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불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암자토굴터
▷위 치 : 경남 의령
▷평 수 : 1,500평
▷가 격 : 1억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짜였고, 앞의 저수지 옆에 계곡을 낀 최적의 암자터
전화 :
0595)82-4715
015)528-4477

佛 여래미술원 心 大圓佛教美術院
* 탱화 * 개금
정우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H. P. 011-324-5133

金魚 李鍾春
* 불화 조성 전문
13,15,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국내최초! 독창적 과목과 송
대원 문재현 역저

◆위 치 : 충북지역 시내 교통중심지
◆부 지 : 743평 목조 단청 및 부처님 전신사리 봉안
◆요 사 : 50평 접견실 및 주지실 공양칸 기타 대중방
◆가 액 : 1억6천만원 / 차량 2대 운행중
◆특 징 : 시내중심지에 소재하면서 독립된 산속에 위치한 기도 및 포교도량의 본산으로 불교 중흥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드립니다. 단, 보살님이나 무속인 기타 일반인의 전화상담은 절대 사양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전국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무상으로 연결하여 드리고 중개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전국지역 사찰 건축, 단청 전문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5)134-6334(24시간 호출중)
서울본사:02)3705-4447

탁자, 닫집, 법상, 운짝, 불교조각
주요품시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심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영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아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보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대표자 : 합장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빌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연락처 02)954-1474
02)995-9080
도봉산 천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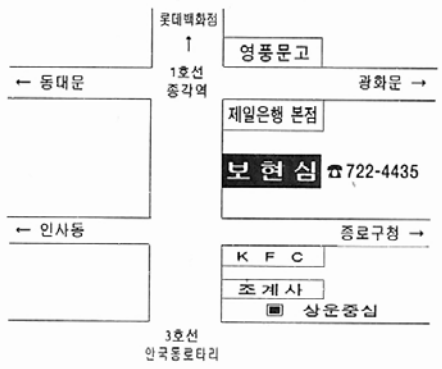
들꽃누리
●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귀의 삼보하옵고, 인생은 무상하고 기록은 영원 불멸합니다. 들꽃누리에서는 인생 경험과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들꽃누리에서는 성실과 신용을 기반으로 고객이 바라는 대로 출판에 관한 모든 것을 정성스레 대신해 드립니다.

● 하는 일 ●
▶ 출판대행(기획 · 교열 · 교저)
▶ 편집대행
▶ 광 고 ▶ 수필집
▶ 시 집 ▶ 법어집
▶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72-70 연남빌딩 503호
전 화 (02)762-1387
팩 스 (02)745-2964
삐 삐 015)8492-4988 담당 : 김숙희

보 현 심
거룩한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그동안 보현심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운중심에서 아래와 같이 보현심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현심을 찾아주시면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1997년 8월

이 전 개 업 안 내
■ 개 업 일 : 1997. 9. 3(수)
■ 취급품목 : 차 · 다기
금 · 은 · 옥 · 호박 · 호신불
불교용품일체
■ 문의전화 :
02)722-4435
02)720-6641
※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예쁜연등과 우리향을 개업선물로 드립니다.
普賢心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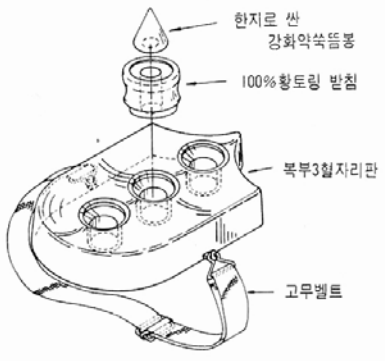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 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자매품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여성의 모든 질병은-하복장기의 질환이 원인 ...?"
얼굴이 항상 윤택하고, 깨끗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용 **전통황토·쑥좌욕기**

"오랜 옛날부터 선조들의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
탁월한 질병치료 비방(秘方)"



◎ 전통 황토·쑥좌욕기의 질병치료에 대한 탁월한 3대기능 및 효능

①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 병질환 및 변비·치질·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②미용효능

● 피부윤택,노화방지
● 기미,여드름제거
● 비염,편도선염,천식

③뜨거운 수증기찜질효능

● 허리요통, 디스크, 삔데, 척추질환등

◎ 보급가격 : 전통황토쑥좌욕기 : ₩270,000
침대(벌도선택구입사양) : ₩90,000

지역문의
서울 : 종로·서대문구 (02)747-7033 송파구 (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북 : 울산 남구 (0522)74-7536 울주구 (0522)85-1284 포항 (0562)75-1560 경남 : 마산 (0551)23-9016 부산 : 연제구(보문포교원) (051)864-3740 부산진구 (051)867-2926 경기 : 광주 (0347)64-3172 용인 (0335)36-4294 충북 : 제천 (0443)46-3023 충남 : 예산 (0458)33-3208 보령 (0452)33-1336 전북 : 익산 (0653)856-8659 강원도 : 강릉 (0391)645-2117

강연 춤·노래 새싹불심 다짐

충북청소년 연합축제 성료

충북청소년불자연합회(회장 염기섭, 청주공고 2)는 8월24일 청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부처님의 자비심 우리 마음에'라는 주제로 제19회 청불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지역 6개 사찰학생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3백여명의 중·고등학생이 합심해 기획에서부터 장소섭외, 무대장치, 공연 등을 직접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청불제는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한 우세종(충북상고 교사)씨의 문화재 애호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봉행된 대법회에서는 월탄스님(용화사 주지)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신행생활'에 대해 법문했다. 또한 관음사학생회, 수도원학생회, 충주불교학생회, 용화사학생회, 풍주선원학생회, 한산사가 노래 춤 사물놀이 꽁트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염기섭회장은 "축제 등의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적 심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혜능보육원 원생들이 초청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목탁치는 재가불자 늘고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목탁소리로 새벽을 깨우는 집이 있다.

동양화재 수재상사대리점 대표 송하건(60)씨의 집. '집에서도 절에서와 똑같이 여법하게 법회를 볼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송씨가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에서 목탁, 요령 등을 배운 이후 1년여를 부인과 함께 조석예불을 보고 있는 현장이다. 송씨의 집전 솜씨는 경건함을 더할 정도다.



◇재가불자들이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천도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예불 생일환갑 축원 영가천도 '손수 집전'

동산불교대등 실수교육…의식통일 과제

송씨는 가정예불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친지나 이웃, 동료가 상(喪)을 당할 때면 직접 시다림을 하며 훈훈한 정을 전한다.

이처럼 목탁 요령 염불송을 배워 직접 생활에 활용하는 재가불자들이 늘고 있다. 포교와 불교의 생활화에 대한 불자들의 참여의식이 고조되면서 비롯된 것.

교계에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 금강불원의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학장 명수)과 재가자를 대상으로 한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등 2개의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 그 외에도 조계사불교대학, 불광사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대구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 육천범음대학, 전북불교대학 등 전국의 불교교양대학에서 기초교리 강좌시간에 불교의식실수를 마련하고 있다.

동산불교의식교육원의 경우 예불에서부터 법회의식, 경조사, 천도재 등의 특수의식에 이르기까지 불교의식 전반을 1년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 모든 불교의식을 한글화 해 전수하고 있어 어느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다는게 특징.

동산불교의식교육원 문종순실장은 "수강생들은 집전을 직접하면서 불자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다"며 "예불을 볼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자신이 직접 목탁을 치며 여법하게 치룰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문실장은 "현재 한글·한문, 염불송, 의례 등의 기법이 교육장마다 조금씩 다른 실정이라 불교의식의 통일화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불교의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동기도 포교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집에서 법회·예불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뜻과 포부는 하나다. 불교의 생활화를 통한 포교.

가족과 이웃이 생일과 환갑을 맞으면 목탁을 치며 염불송을 하는 것으로 축하하는 등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례봉사 등은 교계의 신행활동 모델로 새롭게 정착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추석빔은 우리옷으로 '우리옷 입고 고향앞으로' 우리옷입기운동본부(집행위원장 홍무흠)는 8월28일 서울역광장에서 '우리 명절 우리옷 입고 맞이합시다'라는 주제로 범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옷은 물론 젊은 부부·중년부부·가족 옷 등이 다양하게 선보이기도 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단신

표충사 농가서 봉사활동

흙사랑자원봉사단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주최한 제4회 불교청소년 흙사랑자원봉사단이 8월25~28일 밀양 표충사일대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중고생 1백20명이 참여해 표충사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농촌의 일손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발우공양 참선 마음나누기 등을 통해 자아발견의 기회를 가졌다.

흙사랑자원봉사단은 형식적이기 쉬운 자원봉사에 수행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서 내실을 기하고, 흙속에서의 노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교련 장애인수영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7일 11시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봉사활동을 펼친다.

50여명의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의 불편한 몸을 대신해 수영을 돕게 되는 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한다.

(02)735-8165

참나찾기 청소년팔관재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8월 30일, 31일 이틀간 북한산 태고사와 중흥사에서 1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태고보우 원증국사 정신계승 참나 찾기 청소년 팔관재'를 봉행했다.

팔관재란 부처님께서 설한 여덟가지 계율을 받아 몸과 마음을 청정히 닦는다는 의미로 이번 팔관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8계를 주고 이를 이틀동안 지키면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팔관재는 본래 종단차원에서 매년 재현해왔으나 올해 영산재를 국재(國齋)로 치르기로함에 따라 청년회에서 이번 행사를 맡게 됐다.

KBUF 수강생 모집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설 KBUF 불교아카데미(학장 정락)는 11일까지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과목은 인도불교사·경전개설 법성게 등. (02)732-0239

새상품

자동다이얼자물쇠

디자인 산뜻… 키 없이도 사용



'자물쇠도 패션시대.'

(주)지코트(대표 이해동)는 스키, 자전거, 배낭가방 등 무엇이나 잠가둘 수 있는 자동 다이얼 자물쇠를 선보였다.

신세대 감각의 첨단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인 이 제품은 키없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이 산뜻해 장식용으로도 적당. (02)501-1608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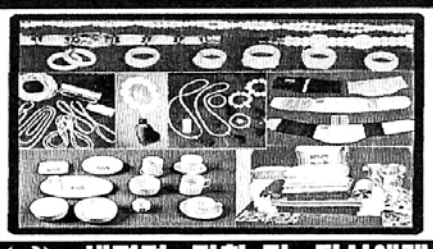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신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히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씹어서 사이먼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분당 合堂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玉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만성지병 투병환자의 영험적 쾌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粹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초심자 환영) 선착순 20명(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70萬点)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 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올 한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인듯···

뜨거운 열기로 잠못이룬 밤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변화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로 우리 가슴과 정신을 맑게 해주고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이 탁 트일 것만 같습니다.

풀벌레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한껏 이 가을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했던 일도 꼭 한가지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 높고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보며 -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종단소식

조계종

고산스님 계사로 포살법회

증앙종무기관 교역직종무원 및 직할교구주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8월 포살법회가 고산스님(호계원장)을 계사로 25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됐다.

은해사 보살계 수계법회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웅전에서 전계대화상 일타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봉선사 불교교양 특강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4일 제1기 불교특강을 개설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칭풍루에서 마련되는 이번 불교특강은 예절, 법구의 이해, 재가의 제사, 공(空)사상 등이 12월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봉선사는 2일 불교교양대학 15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영산재 국재 봉행위 구성

총무원(원장 인곡)은 8월27일 총무원에서 종무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월21일 국재(國齋)로 치르기로 한 영산대법회 봉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봉행위원장에는 인곡 총무원장 스님이, 고문에는 보성 종정스님과 덕암 선암사 방장스님이 맡기로 했으며 총무, 재무 등 10여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영동·영평정 분원장 선출

강원교구종무원(원장 편백운) 영동분원과 영평정분원은 8월21일 분원산하 사찰주지회의를 열고 경혜문스님(동해 동화사 주지)과 박운정스님(영월 계룡사 주지)을 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천태종

삼태사 1053불 봉불식

강원도 영월 삼태사(주지 월도)는 4일 1053불 봉불 및 법당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번 봉불 및 법당 낙성식은 70여평의 대웅전을 새로 건립, 이곳에 신도들이 숙원사업으로 펼쳐왔던 1053불 봉안을 끝마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용 종정스님을 비롯해 종단 간부 및 사부대중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광사 차문화 가을강좌

삼광사(주지 덕수)는 2일 법화당 4층 다심헐에서 차문화연구보존회 가을학기 개강식을 가졌다.

매년 5월 개강해 1년간 강의가 진행되는 차문화 연구보존회는 다례기초, 다례복식, 불교문화, 전통문화예절, 도자기 실습 등의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다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808-7111

진각종

대장경 전산화 후원금 전달



성초 통리원장은 8월 22일 통리원장실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에게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운동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성초 통리원장은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팔만대장경의 새로운 탄생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화종

혜성스님 다비식 엄수



8월19일 입적한 前 종정 혜성스님 영결식 및 다비식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23일 경남 통영시 안정사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구암 종정스님의 법어와 대호 총무원장스님의 조사가 이어졌으며, 영결식이 끝난 후 안정사 다비장에서 다비식이 치러졌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올 4천8백명 단기출가

연령 젊어지고 지식층 참여 늘어

83% 신참…타교·무교인도 20%

31일 불국사를 끝으로 마무리된 올 여름수련회는 전국 8개 사찰에서 진행됐으며, 4천8백여명의 불자 및 일반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일반인이 3천여명, 중·고등학생이 5백60여명, 어린이가 1천2백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참자를 위주로 모집했기 때문에 4천여명의 인원이 사찰 수련회를 처음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종인이나 무종교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 사찰별로 각 차수당 10~20%에 이른다.

이같이 사찰 여름 수련대회가 인기를 모음에 따라 대부분의 사찰이 평균 2.5:1에 이르는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송광사의 경우 지난 해보다 1차례 더 늘려 8차에 걸쳐 실시했으나 2천여명을 사전 탈락시켰다. 해인사와 통도사 불국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횟수를 늘려 달라는 전화가 잇따랐다.

그러나 각 사찰들은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만한 전용수련장이 없거나 부족해 참가인원과 횟수를 더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둔사 법인스님(교무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참가자의 연령이 젊어지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지식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해 사찰수련회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태 등으로 인해 빡빡한 수련일정과 강도높은 정진을 못견뎌 중도탈락하거나 힘겨움을 토로하는 참가자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정방사 태고종 소유"

백양사 부지반환소 패소

전남 백양사(주지 지선)가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태고종 소속 사찰 정방사(주지 현인범)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 부지 반환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1년 4개월의 심리끝에 지난 7월24일 백양사가 제기한 '정방사 사찰부지인 서귀포시 서귀동 236번지 5백73평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美 국방성내 명상모임이 23년간 수행활동을 해오고있다.

美 국방성도 명상수련

'평화클럽' 23년째 활동…긴장된 마음 다스려

미국 국방성 내에 지난 23년간 명상을 하는 대중들의 모임인 명상모임 '평화방패클럽'(Peace Shield Club)이 꾸준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미국의 불교시사잡지 〈트리사이클〉지(여름호)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국방성 수행관에서 개최되는 명상모임에는 정회원 50여명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장성과 제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방성은 매년 2백여조원을 지출하며 2만5천여명이 상근하고 있는 미국 군부(軍部)의 핵심.

명상모임 회장 바트 이브스(군사전략전문가.47)는 "이 곳은 폭발하기 직전의 분화구와 같은 긴장감이 도는 전쟁터"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마음도 항상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은 다스릴 방편은 명상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2년동안 수행관에서 관법 등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이브스는 "금요 모임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명상을 함으로써 긴장과 위기감을 다스리고 평화를 얻는다고 토로한다"고 말했다.

명상모임은 1976년 방위사령부 前재정분석가인 윈체스터(60)가 만든 불교동호회. 당시 교도서 등에서 '평화방패' 캠페인을 전개했던 그는 '나로파 연구소'(美, 콜로라도주)의 조양 트렁파 린포체와의 만남을 계기로 명상모임을 만들었다.

日조동종 北에 식량지원

쌀 국수 등 1차분 130t

일본 조동종 국제자원봉사자회(회장 松永然道) 북한식량지원단이 8일부터 지원물자를 선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편이 11일 신세키항(新潟港)을 출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식량은 중국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구입한 쌀, 통조림, 국수 등 총1백30톤의 물량이다.

국제자원봉사자회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금운동과 함께 식량지원을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 원산항을 통해 들어간 식량은 WFP와 공동으로 배급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부산방송 노조 결성

불교부산방송(지사장 류진수)에 노동조합이 창립됐다. 위원장에 최상만씨(운행부 사원). 불교부산방송 노조는 8월26일 조합원 11명중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운영위원회를 결성했다. 노조는 서울 불교방송 노조와 긴밀한 관계 하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모사

갑작스런 이별 화두가 되고…

휴암(休庵)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보니 그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쉬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출가 30년, 언제부터인가 사탐을 대하는 품이 넉넉해지고 행동거지가 시원시원하더니 최근에는 청소년처럼 씩씩한 기상까지 보이더이다. 원래가 꾸밀 줄 모르는 성품에 질박한지라 근래 그의 모습은 무애도인(無碍道人)의 풍모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참으로 선승이었습니다. 스님다운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장 파격적인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내 문중이란 의식도 없었고, 정한 스승도 상좌도 없었습니다. 승가의 도반이 반이라면 속가의 법려(法侶) 또한 반이었습니다.

그는 승(僧)에도 속(俗)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계율을 존중하되 계율에 집착하지 않았고, 부처를 따르되 심법(心法)을 따랐지 습법(習法)을 추종하지 않았으며, 어떤 종교, 어떤 이념이든지 교조화되는 순간 이미 어긋난 것이라고 설파하곤 했습니다.

불교개혁도 제도보다 정신의 개혁을 중시했습니다. 모든 집안을 자기 문중으로 알았고 모든 큰스님을 스승으로 받들었으며, 모든 젊은 이를 제자로 여겼습니다.그러나 사물과 사태에 직면해서는 사(私)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공과 불교를 위한 비판에는 서슴이 없었습니다.

그는 야인인 동시에 귀인이었습니다. 고매한 정신의 드문 귀족인 동시에 참으로 꾸밈없고 자유로운 들녘의 자연아였습니다. 이제 그는 갔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두를 남기고 갔습니다. 오고 감이 둘이 아니듯이, 명(命)과 비명(非命)이 둘이 아님을 보이려 함입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이 희한한 이별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영원한 화두입니다. 여름 어느날 기기암(崎崎庵)의 주련(柱聯)을 함께 읽었습니다. '해저니우함월주(海底泥牛含月走)', 이것이 그 이별을 예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아, 사랑하는 벗님!

옛벗 김규칠(산업기술정보원장)

기기암 휴암스님 입적



기기암 선원장 휴암스님(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원)이 8월23일 낮 12시10분 화천 파로호에서 목욕중 입적, 법구 수습작업중에 있다.

이날 기초선원운영위원회의를 마치고 위원스님 3명과 함께 은사 혜원스님(해원사)을 친견하고 난 후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스님은 41년 마산에서 출생, 69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그해 갑사로 출가, 평생을 선원에서 정진해왔다. 저서로 〈한국불교의 새얼굴〉〈장군죽비〉 등을 남겼다.

스님의 영결다비식을 준비하고 있는 기초선원운영위원회는 기기암에 빈소를 마련 분향을 받고 있으며, 8월 29일 초재를 지냈다.

강릉 초 종교 봉사연합체 탄생

강릉복지관 등 30개 단체…회장 정복현불자

강원도 강릉시에 최초로 자원봉사협의체가 창립될 전망이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YMCA 등을 비롯 30여 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는강릉시 자원봉사협의회(준비위원장 정복현·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는 최근 준비위원회의를 갖고 회장에 정복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을 선출했다.

강릉시 자원봉사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추진돼 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봉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 해결사를 믿어라

자신의 진짜해결사를 먼어라. 오호지 자신의 해결사를 먼고 모든것을 거기에 맡겨라. 안된다는 생각, 안되는 사정을 붙들고 늑어짓게 아니라 해결사에 놓아버려라. 해결사의 능력을 먼어라. 먼음이 강하면 보고가 역전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약(藥)이 되는 신비한 식물 —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하고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입증된

기적의 한국산 약초

신비의 약초 백화사설초 「암」치료에 탁월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간암·직장암·식도암·방광암·자궁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바 불심짙은 우바이가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후 재배를 확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신농산 대표 김나진자 보살은 C형간염·황달·당뇨 등이 겸쳐 사경을 헤매며 각종 양방과 한방을 썼지만 치료가 안돼 소문을 통해 듣던 백화사설초를 구입, 달여 복용한 결과 병이 치료되어 본인이 직접 이 약초를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보급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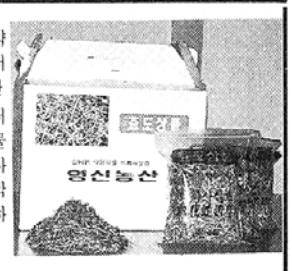
백화사설초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되는 것을 처음 발견 「백운풀」이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30cm정도의 키에 연약한 대궁이 뱀의 혓바닥(蛇舌)처럼 생긴 잎에 흰꽃(白花)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부를 약용으로 하며 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타박상에 특효 약초로 쓰인다.

또한 청열해독제(淸熱解毒劑)로도 이용되며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불자 운영하는 「영신농산」서 보급

각종 염증·종기·타박상에도 효과

경남생약연구소의 성환길소장(약학박사)은 『백화사설초는 옛날부터 전해온 민간약으로 청열·종기·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과 항암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 천연약물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며 『백화사설초의 엑기스가 동물실험에서 악성종양세포에 강한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전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길서 중에서)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백화사설초의 효능

◆ 항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법진문화사 刊)-간염, 장염, 요초감염, 령장염, 편도선염, 인후염, 각종 종기, 타박상,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한방의학 대사전(진존인 저)-간암, 위암, 식도암, 간염, 위염, 식도염, 편도선염, 직장염

1997년 7월 16일자 대한불교신문기사 발췌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백화사설초 주제 발표	일시 : 1996년 10월 31일 23시 30분 KBS 국제건강가족동우회 박영호 실장(박사)

영신농산총판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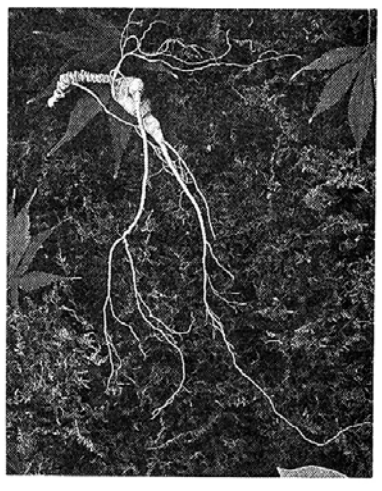
☎ 051) 465-5100,467-52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궁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튐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이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옴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전 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스님들 풀뿌리민주주의 '앞장'



◇성타스님 ◇설조스님 ◇정각스님 ◇무공스님 ◇현고스님 ◇태일스님 ◇진옥스님

시민·환경운동 적극참여 '깨달음의 사회화'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지자체들의 지나친 개발의욕 때문에 국토를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정신으로 지역 시민·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어 불교사회운동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지역 시민·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스님은 성타 정각 설조스님 등.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지난 93년 대자연환경보존회 이사장에 취임하면서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해 왔다. 95년 지방자치 실시를 전후해서는 경주경실련 공동대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경주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경주 고도의 문화재·환경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부산불교자비원장 정각스님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93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시민·환경운동에 나섰다. 현재 맡은 직함만해도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 공동대표, '환경산살리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 등 7개에 달한다.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95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경실련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역 시민단체를 이끄는 스님들도 있다. 대구 동화사 주지 무공스님은 올해 2월부터 대구경실련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통천사 주지 태일스님은 지난해 3월 새대구·경북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지역발전·주민복지 향상에 몰두하고 있다.

이밖에 순천 송광사 주지 현고스님은 95년 12월부터 '주암호보전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광주·전남지역의 젖줄인 주암호를 지키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은 지난해 발족된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서 여수반도를 지키고 있다.

이같은 스님들의 시민·환경운동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박재율 사무처장은 "청정한 스님의 이미지가 순수한 시민운동의 이미지와도 일치돼 불교의 자연스런 홍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고도보존법 제정 경주시, 정부에 건의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의 '역사고도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과 관련, 경주시가 91년 문체부에 건의한 고도보존법 시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별도로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139호 1면 참조〉

경주시가 8월13일 문체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경주고도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보존특별지구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무총리 산하에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심의위원회 설치 △위원은 문체부, 건교부, 재경원 등 관련부처에서 12~17명 위촉 등을 골자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시험 평일실시 발언 와전"

이회창대표 유감표명

신한국당 이회창대표는 8월28일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주일 국가시험 반대' 발언과 관련, '주일시험은 원칙적으로 종교활동에 어긋난다고 8월18일 극동방송 토론프로에서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그 진의가 일부 와전된 것"이라면서 "아무튼 본의 아니게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어느 방청객의 즉석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일시험이나 종교활동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본인 자신도 일요일에는 좀 쉬면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개인적인 설명을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7개 교계단체는 8월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시험 평일실시' 발언에 대한 이대표의 공개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8월 20일 이대표에 이어 극동방송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정부의 일요일 시험과 관련, "전부 없애는 것은 힘들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가능한한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었다.

봉암사 인근리조트 경북도 강행

조계종에 공문

경북도는 5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봉암사인근 리조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이 공문은 총무원과 봉암사가 이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답안에 리조트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 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장문화재 발굴 '전담기구' 필요

고고학자 28명 설문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의 형태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성격의 발굴기구가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발굴조사의 공익성과 운영기금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일 경우 자본유치를 위한 기관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이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의 의뢰로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구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 정회원 중 학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진급학자 28명의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고고학회는 이를 토대로 8월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안과제를 검토하는 '매장문화재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TV까지 방화 손길

다행히 불 안번져…야간출입 통제등 대책

최근 잇따른 사찰방화에 이어 8월 25일 오전 10시경 불교TV 스튜디오에 방화미수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화재는 1층 스튜디오 외관 방음벽에서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TV측은 "8월22일에도 스튜디오의 겉유리가 반경 15㎝, 안유리가 60㎝정도 잘려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선사 방화미수 사건을 보도한데 대한 보복성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는 현장수사활동을 실시해 타다남은 종이를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14명의 방화전담반(반장 임정기)을 조직, 화재원인 파악 및 범인검거에 나섰다.

불교TV방화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불교방송(BBS)이 있는 불교진흥원은 25일 회의를 갖고 △인화성물질 반입금지 △야간출입통제 등 방호대책을 수립했다. 또 90년 5월 해불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 건물내·외부에 CCTV 20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람료등 교권수호 공동대처"

교구본사 주지모임

조계종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희장 설조)은 8월26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월례정기모임을 갖고 관람료 분리징수, 사찰농지법, 교권수호 등에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16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의 "주일 공무원시험실시가 종교활동에 저촉된다"는 극동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해명과 공무원시험 평일실시를 본래대로 일요일로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날 귀순자들에 대한 포교지원책으로 각 본사별로 남순지장회 회원들과 결연을 맺어 적극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선사 방화미수범 1천만원 현상수배



서울지방경찰청 사찰화재전담반(반장 김상봉·형사과장)은 최근 평창동 일선사 방화미수범의 몽타즈를 작성,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배포하는등 범인검거에 나섰다.

수배된 용의자는 나이 35~40대 초반, 신장은 162~165㎝이며 상고형 더벅머리, 짙은 눈썹, 전라도 말씨 등의 특징이 있다. 이와관련 경찰측은 방화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을, 범인을 검거한 경찰은 1계급 특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경은 8월 26일부터 서대문, 북부, 도봉경찰서 등 방화위험성이 높은 경찰서를 주축으로 4~6개 중대 병력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찰일대에 투입, 방화예방 및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전화 (02)362-2549

목탁소리

'분리징수'의 해답찾기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8월1일 국립공원내 일부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며 불거져 나온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가 한달을 넘기는 가운데 아직 해결의 기미는 안보인다.

종단은 종단대로 '강경대응' 방침은 세웠지만 관련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고 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문제성 발언을 하며 개별 사찰을 접촉해 교계를 자극하고 있다.

해당 사찰들은 지난 한달간 지역 여론에 시달리며 총무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만 기다려 왔다. 8월26일 열린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이 "총무원은 시급히 본사주지회의와 관람료 사찰주지회의를 통해 분리징수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람료를 인상한 관람료위원회가 아직 소집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종단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종단행정의 헛점을 노출시켰다는 비난의 여지를 보였다. 총무원과 관람료위원회 관광사찰주지회의등의 긴밀한 대응이 유보되는 사이에 관리공단 이사장의 '틈새공략'을 받았기 때문이다. 종단 일각에서는 이 문제와 연말대선을 연결지어 해석한다. 또 이미 오래전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던 '합동징수 분리징수'의 문제를 이번기회에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큰 안목'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두 시각 다 교계의 정서상으로는 타당성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 당장 관람료와 입장료를 내야하는 입장객과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지역민들의 여론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여론은 사찰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총무원이 보다 탄탄한 행정력을 통해 불교계의 의지를 공단측에 명확히 보인다면 분리징수 문제의 답은 쉽게 찾을 수도 있다. 공단에 맞서 합동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사찰들과 여주군청이 신륵사의 분리징수를 보류한 사례 속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뉴스 & 뉴스

조계종 발전5개년1500명설문

조계종이 종단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교계지도자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지홍)은 승가 재가를 막론한 교계 지도자 1천5백명을 상대로 하는 설문을 8월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 그 결과를 분석해 종단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획실이 제작한 설문은 우리사회에서의 종단의 위상, 바람직한 종무행정체계, 승가및 재가 교육의 문제등 32개 문항이다.

문화재사범 처벌 대폭강화

문화체육부는 최근 문화재 도굴과 도난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강화되는 새로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사범에 대한 벌금은 현행수준의 10배이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지정이나 가지정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각종 건설공사 전에 유물의 유무(有無)를 파악하는 '문화재사전지표조사제'가 도입되며,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구를 직접 설립하거나 육성하는 한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가 확대된다.

조계종 5개 불교대 인가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8월29일 을 상반기에 종단등록을 신청한 부산 진여원불교대학(대표 혜총스님) 등의 불교대학을 신규인가했다. 종단등록을 하면 해당 불교대학 수료자에게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새로 등록인가된 불교대학은(괄호 안은 대표, 소재지) △대불련 불교아카데미(고영삼, 서울) △금화사 불교대학(대안, 부산) △불자신행대학(정인, 경남창원) △광주불교교육원(지선) 등 5곳이다.

진관스님 항소심 10년구형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으로 구속중인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8월26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속개된 가운데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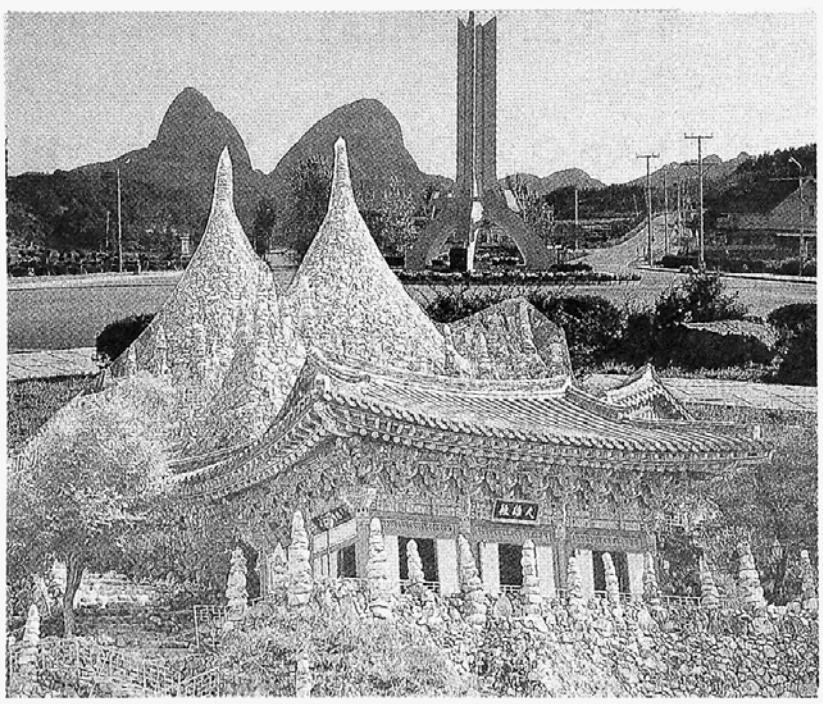
이날 재판에서 윤기원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배포는 국가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강병연씨와의 전화통화나 팩스내용만을 갖고 회합·통신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진관스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일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실 법정에서 열린다.

7일 청정운동 논산대회

청정운동추진위(총재 서돈각)는 '97 청정운동실천 논산대회를 7일 오후 2시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 야외법당에서 개최한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남지심씨(작가·우리는 선우 이사장)가 강연한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동자승 (大·小)
산사의 향기 (大·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 738-8682
(야간) 011-265-0923



◇감은사지 금당터에서 문무왕에 얽힌 전설을 설명하는 이근직선생(가운데). 동해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킬 것을 유언한 문무왕이 용으로 드나들었다는 금당 밑의 빈 공간과 작은 구멍이 실재한다.



◇황룡사지 9층목탑과 함께 신라 삼보 중 2보였던 장육존상의 대좌석과 주춧돌.

신라인의 서원 오늘도 생생히…

감은사·대왕암·황룡사지 호국불교의 정수
골굴사 마애불 아침미소 보며 통일발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8월 황룡사지·감은사지 外
"신라인의 바람(願) 바람(風)"

8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주제는 '신라인의 바람(願) 바람(風)'. 불상과 탑, 사찰로 국토 곳곳을 수놓았던 신라인들은 이땅을 그대로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거셌다. 45명의 테마여행객들은 23일 밤길을 달려 경주로 향했다. 24일 새벽에 맞는 예불소리가 유난히 청명했다. 불국토는 어디인가. 청정한 마음, 지비로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아닌가. 〈편집자 주〉



◇답사객들이 골굴사 마애여래불좌상(보물 681호)에 참배하고 있다.

산사의 적막을 깨운 염불로 장엄된 기림사(주지 법일) 상천불전에는 새벽임에도 입시생을 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열기를 뿜고 있었다.

기림사(祇林寺)의 이름은 부처님 당시 최대의 사찰이며,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설법했던 기원정사에서 유래되었다. 광복 전까지만 해도 31본산의 하나로 불국사 등 61개의 말사를 거느렸던 거찰이었지만, 지금은 불국사의 말사로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물씬했다.

기원정사서 기림사 유래

기림사에는 유서깊은 사찰에 걸맞게 많은 성보문화재가 박물관 등에 보존되고 있었다. 기림사의 본전으로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창건되어 조선 인조 7년(1629)에 중수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전인 대적광전(보물 833호), 16세기 불상으로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보물 958호), 비로자나불상 속에 봉안되어 있던 비로자나불 복장전적(보물 959호), 조성된 진흙으로 속을 만들어 삼베를 감고 종이를 바르고 그 위에 옻칠을 하고 다시 금을 입힌 관세음보살반가상으로 조선조 연산군 7년(1501)에 조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건칠보살좌상(보물 415호)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자세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승군들의 지휘본부로 사용된 진남루(鎭南樓, 문화재자료 251호)와 나발, 목비 등에 대한 설명에서는 당시의 처절했던 격전을 회상하며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기림사 참배후 천연석굴사원이자 선무도 총본산인 골굴사(회주 적운)에 도착했다. 수십미터 높이의 거대한 석회암에 12곳의 동굴이 나 있고, 가장 높은 암벽에 돋을새김으로 조각한 마애불상(보물 681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준다.

작운스님의 상좌 관오스님이 답사팀을 위해 도반들과 함께 선무도 시범을 보였다. 직장인 한영숙(27)씨는 "많은 답사를 다녀보았지만 살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기는 처음이다"며 선무도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인도에서부터 전래된 선무도는 신라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수련한 무술이자 깨달음을 향한 행선(行禪), 회원들은 선무도를 통해 신라인의 멋과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도착한 곳은 감포의 대왕암. 문무대왕의 유언에 따라 조성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중릉(水中陵)이다.

분황사 원효스님 체취 가득

국왕으로서 일신을 화장하여 호국·호법의 이념을 구현한 문무대왕에 얽힌 갖가지 설화들이 천년이 지난 오늘 다시 감동으로 다가왔다. 문무왕이 용으로 변해 드나들었다는 금당지하의 공간과 동쪽으로 난 작은 구멍이 역사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듯해 경이로움을 더했다.

점심공양을 하고 마지막 들린 곳은 '신라 불국토설'의 진원지인 황룡사지와 인근의 분황사. 삼국통일의 원이 깃든 광대한 황룡사지에는 신라인들의 웅장하고 활달한 기상이 살아있었다.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으로서 진흥왕 30년(569)에 창건된 황룡사는 현재, 신라 삼보중 2보인 장육삼존상과 9층목탑이 있었던 대좌석과 주춧돌 등의 흔적을 남기고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지와 초석들이 신라불교의 메카였음을 짐작케 했다. 금당터에는 "100개의 서까래(당시 스님들)는 다 어디 가고 마지막 대들보(원효)만 남았구나"고 외친 원효스님의 사자후가 들리는듯….

원효스님의 체취는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 황룡사와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분황사(주지 종수)에도 가득했다. 고려 숙종 때 원효스님을 기리며 세운 화쟁국사비의 비좌와 추사 김정희의 서체,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모전석탑(국보 30호)의 고전적인 분위기가 신라불교의 무게를 가늠케 했다. 분황사는 매년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기 위해 분황사와 경주시 일원에서 '원효문예대제전'을 개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라인들의 서원과 멋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경주 곳곳에 남아 있어요. 1년 내내 답사를 해야 어느정도 감이 잡히지요."

다음 답사를 기약하는 경주 출신 이근직선생의 마무리 말이 신라인의 긍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글=김재경 사진=고영배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이 근 직 (경주대 강사)

전문가 안내

모든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은 당대인들의 정신성의 결정체다. 신라의 문화유산은 이런 특징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감은사지와 대왕암, 황룡사지 등은 신라 불국토설을 바탕으로 한 호국불교사상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다.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8세기 통일신라의 사상과 예술은 호국불교사상의 기조위에 꽃을 피웠다. 원광 자장 원효 의상과 같은 뛰어난 정신적 지도자를 배출한 신라의 불교사상은 삼국통일을 이루는 정신적 토양과 자존심이 되어, 신라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

삼국통일의 영주 문무대왕과 연관된 동해구(東海口)의 3대유적인 대왕암과 이견대, 감은사지는 시대와 장소, 인물의 만남에서 완성된 신라정신의 중핵을 이루는 지역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대왕이 죽고 그 유지를 따라 동해구의 대석상(大石上)에서 장사지냈는데 문무대왕이 용이 되었다고 전한다. 또 문무대왕이 왜병을 진압하기 위해 동해변에 진국사(鎭國寺)란 절을 짓기 시작

감은사 쌍탑 한국석탑 전형양식
"가섭불 황룡사서 좌선" 기록
국보 분황사모전탑 신라最古

했다. 그러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왕이 죽자 신문왕이 바로 이듬해 절을 완공하고, 부왕의 은혜에 감사하여 절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 하였다. 이 절의 금당아래에는 굴을 파서 바다의 용이 직접 이곳에 들어와 쉬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감은사지 발굴에서 직접 확인되기도 했다.

감은사지에는 문무대왕의 비원을 간직한 동·서 3층석탑이 우뚝 솟아있다. 13.4m란 규모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한국석탑의 전형양식을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는 탑이다. 사찰건립의 발원에서부터 거대한 규모에 이르기까지 신라인의 기상을 나타내는 감은사지 쌍탑은 호국불교사상의 결정이면서 신라 삼국통일의 기념비적 대탑이라 할 수 있다.

감은사의 쌍탑이 진호국가(鎭護國家)의 의미를 지녔다면, 황룡사 9층탑은 주변의 아홉나라를 항복받겠다는 더욱 철저한 호국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황룡사지는 '이 땅이 본래부터 불국토'라는 신라 불국토설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황룡사 금당뒤에 기섭불이 연좌하던 돌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인도의 서축(西竺)에 상대되는 동축사(東竺寺)란 사찰명을 지을 정도로 문화적인 자존이 높았다. 신라의 호국불교사상은 이같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확립된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림사 성보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답사팀. 오른쪽 불상이 우리나라 유일의 건칠보살좌상(보물 415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97 문화유산의 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6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진주 (0591)747-0106 예산 (0458)33-5097 포항 (0562)252-7749 마산·창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